

2026년 국내 경제·산업 전망

반도체 | 스마트폰 | 디스플레이 | 자동차 | 철강 | 조선 | 해운 |
정유·화학 | 에너지·유틸리티 | 제약·바이오 | 건설 | 항공 | 게임 |
미디어·엔터테인먼트 | 유통 | 식품 | 패션 | 화장품 | 은행 | 증권 | 카드 |
보험 | 저축은행·상호금융

삼성KPMG 경제연구원

—
home.kpmg/kr



Contacts

삼성KPMG 경제연구원

도규상 원장

kdoh@kr.kpmg.com

이효정 상무

hyojunglee@kr.kpmg.com

김규림 상무

gyulimkim@kr.kpmg.com

박도휘 이사

dohwipark@kr.kpmg.com

김나래 수석연구원

nkim15@kr.kpmg.com

김수경 수석연구원

sookyoungkim@kr.kpmg.com

차윤지 수석연구원

yoonjicha@kr.kpmg.com

강민영 책임연구원

minyoungkang@kr.kpmg.com

정미주 책임연구원

mijujung@kr.kpmg.com

최창환 책임연구원

changhwanchoi@kr.kpmg.com

노승환 책임연구원

seunghwanroh@kr.kpmg.com

류승희 책임연구원

seungheeryu@kr.kpmg.com

이아름 책임연구원

alee65@kr.kpmg.com

이종민 선임연구원

jlee547@kr.kpmg.com

본 보고서는 삼성KPMG 경제연구원과 KPMG member firm 전문가들이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보고서에 포함된 자료의 완전성, 정확성 및 신뢰성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를 밟은 것은 아닙니다. 본 보고서는 특정 기업이나 개인의 개별 사안에 대한 조언을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니므로, 구체적인 의사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 법인의 전문가와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성KPMG의 사전 동의 없이 본 보고서의 전체 또는 일부를 무단 배포, 인용, 발간, 복제할 수 없습니다.

Contents

I.	2026년 경제 전망	6
----	-------------	---

II.	2026년 산업별 전망	22
-----	--------------	----

III.	시사점 및 기업 대응 전략	46
------	----------------	----

Executive Summary

2026년 국내 경제·산업 전망 Overview

- 국내외 전반에서 저성장 고착화 및 양극화 기조가 이어지는 가운데 미국 트럼프 정부의 통상정책에 따른 영향이 본격화할 전망으로, 각국은 재정우위 전략을 통해 산업 경쟁력 강화와 내수 부양을 도모하고 있음. 한편 연준의 통화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금융시장은 높은 변동성에 노출. 이에 국내 기업은 공급망·수출 다변화, 혁신 기술 투자, 재무 안정성 강화 및 정책 변화 모니터링을 통한 유연한 대응 방향 마련 필요



- '26년 국내 주요 산업은 글로벌 지정학 리스크, 기술 혁신, 정책 변화 등 복합적인 대외 변수와 구조적 변화가 교차하는 환경 속에서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음. 반도체 등 미래 성장 동력 산업들이 한국 경제를 견인하겠으나, 일부 전통 제조업에서는 구조적 침체와 경쟁 심화가 불가피. '26년은 침체와 회복이 교차하는 환경에서 도전적인 해가 될 것으로 전망
- 국내 주요 산업 23개 기상도를 살펴보면, 반도체, 화장품산업이 '매우 긍정적' 업황을 맞을 것으로 보임. 한편 스마트폰, 조선, 제약·바이오회를 비롯한 7개 산업이 '긍정적'으로 나타났으며, 디스플레이를 중심으로 한 8개 산업은 '중립'으로 분석. 반면 자동차, 철강, 카드 등 6개 산업은 '25년보다 다소 성장세가 둔화된 한 해를 보낼 것으로 예상

Executive Summar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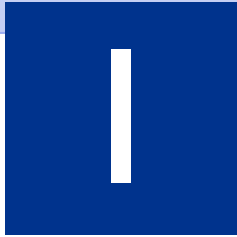
2026년 산업 전망 기상도



산업	2026년 전망
반도체	
스마트폰	
디스플레이	
자동차	
철강	
조선	
해운	
정유·화학	
에너지·유틸리티	
제약·바이오	
건설	
항공	

산업	2026년 전망
게임	
미디어·엔터테인먼트	
유통	
식품	
패션	
화장품	
은행	
증권	
카드	
보험	
저축은행·상호금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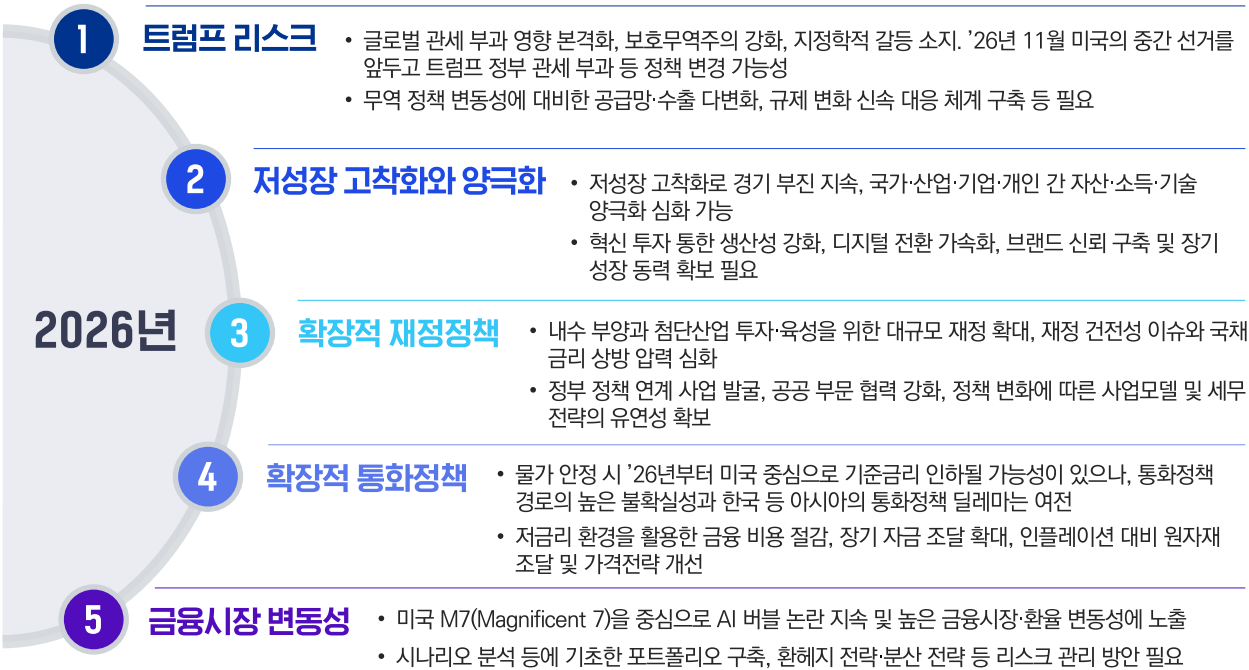
Source: 삼정KPMG 경제연구원



2026년 경제 전망



[I] 2026년 국내외 주요 경제 이슈



Source: 삼정KPMG 경제연구원

① 미국 MAGA(Make America Great Again) 정책 영향 본격화 및 불확실성 지속

- 관세 영향 본격화와 환율 불확실성으로 '26년 글로벌 무역은 전년대비 둔화 가능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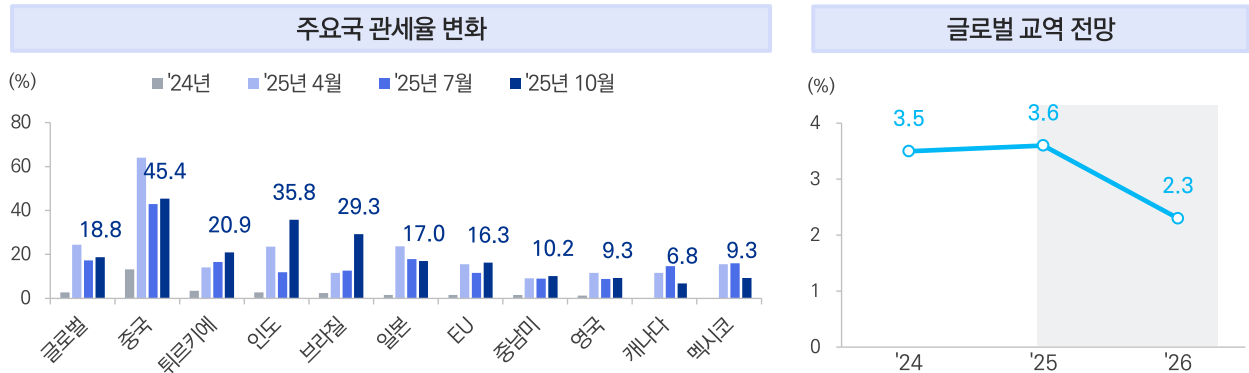
트럼프 대통령은 각종 행정명령 등을 통해 MAGA 정책 시행. 특히 국가별 상호관세 및 일부 품목·국가에 대해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며 무역협정을 진행. 각 국가가 역시 이에 대한 정책을 조정하며 대응

-

한편 트럼프 정부가 시장 충격 및 정치·경제적 압박으로 개별국과의 관세 시행을 유예·철회하면서 유효 관세율은 당초보다 소폭 낮아졌으나 IMF는 '26년 글로벌 교역이 전년대비 크게 둔화(1.3%p)하며 2.3% 증가할 것으로 전망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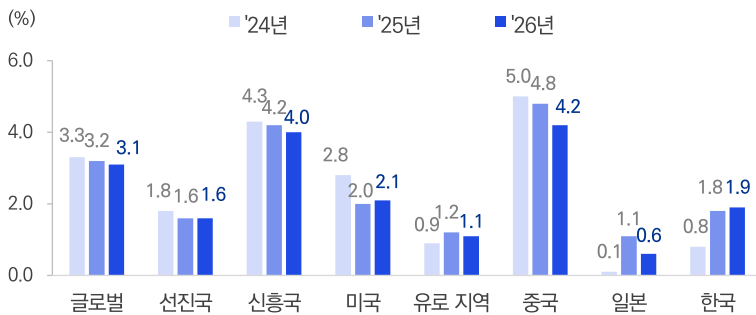
'26년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이른바 'TACO(Trump Always Chickens Out)' 등 정책 변경 가능성 존재



② 세계 경제 성장세가 둔화하며 저성장 고착화 및 국가를 넘어 기업·개인 간 양극화 초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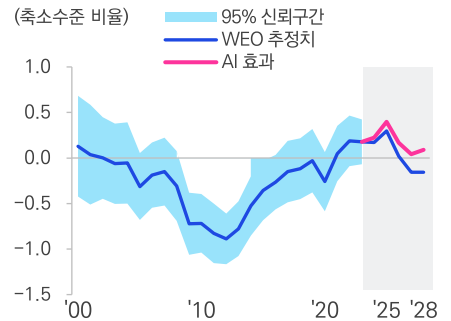
- IMF는 글로벌 경제성장률을 '24년 3.3%, '25년 3.2%에 이어 '26년 3.1%로 경제 둔화를 전망
 - '26년 선진국 성장률은 1.6%로 미국 경제성장률이 소폭(0.1%p) 상승하고 유로 지역은 소폭(0.1%p) 하락 전망. 신흥국은 중국 경제 및 세계 무역 성장 둔화 등에 따라 '26년 소폭(0.2%p) 하락한 4.0% 성장 전망
 - 전 세계적 노동·자본생산성 둔화로 인한 중기적 저성장 국면으로, 이는 국가별 성장 격차 확대로 이어질 수 있음. 특히 AI로 인한 생산성 향상 효과는 국가별 격차를 확대시키는 요인이 될 것으로 전망

글로벌 경제성장률 전망



Source: IMF(2025.10), 'World Economic Outlook', 삼정KPMG 경제연구원
Note: '25년은 추정치, '26년은 전망치

국가별 GDP 격차 축소 수준 ('00~'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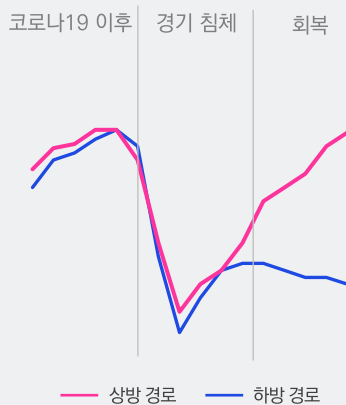
Source: IMF(2024.4), 'World Economic Outlook', 삼정KPMG 경제연구원
Note: 축소 수준 비율이 (-)면 격차가 축소되어 각국이 선진국가에 근접함을 의미

- 한편, 코로나19와 경기 침체를 거치며 산업·노동·자산·기술 수준 간 격차 확대로 양극화·불균형 심화 가능성 존재
 - 대기업·수출기업 vs. 중소기업·내수기업 간 수요와 불평등 심화는 정책 운용의 어려움과 재정 부담 야기. 이는 금융시장의 불안정성, 사회적 갈등을 촉발하는 요인으로 중장기적 글로벌 리스크로 부각

K자형 경제(K-Shaped Economy) 회복 과정 및 영향

주요 원인

- 산업·노동·자산 격차 확대
 - 대기업·수출기업과 중소기업·내수·서비스 기업 간 격차, 저임금·저숙련 노동자와 고임금·고숙련 노동자 간 회복력 차이 확대
- 자산 가격 상승과 부의 집중
 - 완화적 통화·재정정책으로 인한 자산 가치 급등 대비 실물로의 정책 효과 지연
- 디지털 격차 확대 및 기술 진보에 따른 이익 편향
 - 빅테크·첨단산업의 압도적 성장 대비 전통 기업의 부진



- 빅테크·글로벌 기업, AI·디지털 분야, 고소득 전문직은 성장·이윤 확대
 - 상위 10~25%의 고자산·고소득 계층은 소비·저축·투자 확대, 주가·부동산 등 자산 폭등에 직접적인 수혜
 - 부유층은 여행·명품·고가 서비스·투자 소비 증가

- 내수·전통 업종, 중소기업, 저소득 직군은 침체·실업·소득 정체
 - 하위 50%의 저소득·금융취약 계층은 월급·대출 연체, 생계 부담 심화
 - 저소득층은 필수 소비만 유지, 소비 위축·가격 상승에 취약

경제·사회·정치적 영향

- 경기 회복의 불균형
- 통화·재정정책 간 균형적 운용의 어려움·부조화 및 재정지출 부담 확대
- 금융 불안정성 및 금융 시스템 불안
- 경제 성장 동력 약화
- 정치적 분열 및 이념적 극단화

Source: 삼정KPMG 경제연구원

③ 정부 중심의 기술 패권 강화를 위한 투자와 내수 부양을 위한 적극적 재정의 역할 강조

■ 주요국 정부는 신산업 집중 투자를 통한 국가·산업별 경쟁력 강화 및 내수 부양 등을 위한 확장적 재정정책 계획

- 미국은 AI·데이터센터에 대한 투자 환경 조성 및 반도체 공급망 자립도 확보를 위해 관세, OBBBA법을 통한 부양책 마련. 중국은 최근 제20기 제4차 전체회의에서 15차 5개년 계획을 통해 첨단산업 육성에 대한 기조를 이어갈 전망. EU는 방위비 중심 재정 확대, 유럽 주도 AI 생태계 구축을 위해 10억 유로 규모의 대규모 자금 투자 계획 발표
- 한국도 민생 회복을 위한 내수 부양책과 더불어 국민성장펀드(150조 원 + α) 조성 추진

‘25년 주요국의 AI 등 첨단산업 투자 활성화 및 재정부양책

국가	구분	세부내용
미국	AI·데이터센터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5년 1월 미국 AI 인프라 조성을 위한 5천억 달러 규모의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를 발표 - AI 데이터센터 및 인프라 건설, AI 반도체 생산 및 연구·개발, 에너지 인프라 및 전력망 개선 등에 투자 예정 · '25년 7월 23일 AI Action Plan 발표. 'AI 혁신 가속화, 미국 AI 인프라 구축, 글로벌 AI 외교·안보 주도' 등 3개 축을 중심으로 국가 주도 AI 정책 추진 - 연방정부 AI 입찰 시 '객관적 진실', '무편향' 기준(Anti-Woke AI 원칙) 공식화, 민간 AI 혁신 환경 구축을 위한 규제완화 및 철폐, 오픈소스 모델 적극 지원, AI 기술 맞춤형 인력 재교육 및 노동 전환 지원 - 데이터센터 및 반도체 공장의 인프라 허가절차 간소화(환경규제-NEPA 등 면제), 연방정부 AI 솔루션 도입 확대, 전력망·광케이블 등 인프라 확충 - AI 국제 표준 주도 및 전략과 동맹 강화
	반도체 공급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 반도체에 대해 100% 관세를 부과하되, 미국 내 반도체 생산 기업에 대해 관세 면제 · OBBBA법을 통해 '26년까지 미국 내 신규 공장을 착공 시, 첨단제조투자세액공제 공제율 상향 조정 (25% → 35%) · 연방정부·국방부(DoD)의 첨단 반도체 및 주요 IT 시스템 조달 시 '미국 내 제조', 국산화 비율을 의무화
	행정부 예산안 (OBBB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CJA(Tax Cut and Jobs Act of 2017) 법인세율(21%) 및 개인소득세 최고세율 인하 영구화, 표준공제 확대 등 · 신규 기계장치 등 장비투자액에 대해 100% 감가상각 허용, 미국 내 R&D 금액 전액 비용 처리와 영구화 · 이자비용 공제 과세대상 소득 기준 변경 (EBIT의 30% → EBITDA의 30%)
중국	AI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5년 1월 중국은행은 1조 위안 규모의 AI산업 금융지원 제공 계획을 발표 · '25년 3월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1조 위안 규모의 국가창업투자 인도기금 조성 발표. AI, 양자 과학·기술, 수소 배터리 등 첨단 기술 분야에 투자 · '25년 9월 국가개발은행과 중국농업발전은행 및 중국수출입은행이 출범한 '신형 정책성 금융도구(5천억 위안)'를 통한 국채 발행으로 신산업, 첨단 기술, 녹색·디지털 인프라 등 전략 분야에 직접 투자·프로젝트 지원 참여 · '25년 10월 제20기 제4중 전체회의에서 15차 5개년 계획을 통해 향후 5년간 첨단산업 육성과 질적 성장 도모 발표
	내수 부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5년 3월 초장기 특별국채 발행(1.3조 위안) 및 지방정부 특별채권 발행 증액('24년 3.9조 → '25년 4.4조 위안) · '25년 5월 소매·자동차·가전 등 내수 중심 소비 활성화 보조금 지급 · '25년 9월 약 1조 위안 규모로 소비·주택·고용·지방재정 등 4대 분야에 걸친 종합 부양책을 발표
EU	AI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5년 10월 8일, 10억 유로(약 1.6조 원) 규모의 AI 활성화 전략 '어플라이 AI(Apply AI)' 프로젝트 발표 - 유럽산 AI 사용 촉진과 산업 경쟁력 강화 목적. 로봇공학, 의료, 제약, 에너지, 모빌리티, 제조, 건설, 농식품, 국방, 통신, 문화 등 11개 핵심 산업을 AI 우선 적용 대상으로 선정
	재무장기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5년 3월 안보·방위산업 투자와 개혁을 위해 '25~'30년 최소 8천억 유로의 방위비 동원 계획 - 방위비는 EU 재정적자 기준(3%)·국가부채 한도(60%) 산정에서 제외 - EU는 유럽 재무장을 지원하는 1,500억 유로(약 220조 원) 규모 무기 공동조달 대출 프로그램 'SAFE'를 승인
독일	인프라기금 등을 통한 AI·인프라 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5년 3월 GDP의 1%를 초과하는 국방 지출에 대한 부채한도 규정 면제 및 인프라 투자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5,000억 유로(792조 원) 규모의 특별기금을 조성을 골자로 한 독일 기본법 개정안 의결 - 특별기금은 향후 12년간 교통, 에너지, 기후, 디지털화·5G·양자 등 포괄적 신산업 투자 및 연구 등 지원 · '25년 7월 연방정부는 55억 유로 규모의 새로운 AI 전략 발표, 제조업 내 AI 적용을 통한 독일 제조업 경쟁력 확보를 목적으로 산업용 AI 개발에 방점
한국	첨단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5년 9월 국민성장펀드(150조 원 +α) 조성을 통해 미래 첨단전략산업 집중 육성 및 맞춤형 투자 제공 · '25년 5월 산업 내 AI 확산을 위한 4,800억 원 규모의 투자 계획 발표
	경기 부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5년 1차 추경(13.8조 원) 및 2차 추경(31.8조 원)을 통한 민생안정 지원·민생회복 소비쿠폰 등 소비활력 제고 도모

Source: The White House(2025.07), 'Winning the Race AMERICA'S AI ACTION PLAN', 언론보도 종합, 삼정KPMG 경제연구원

■ 주요국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 기초는 재정건전성 악화 및 적자국채 발행에 대한 경계감 유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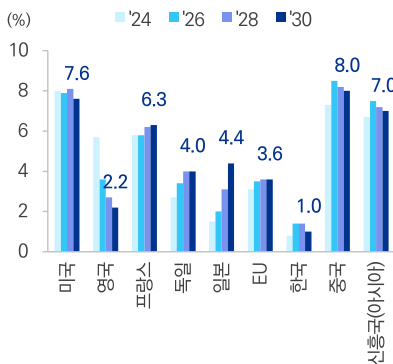
- 주요국은 대규모 재정적자와 정부부채 급증으로 불안정한 재정상황에 놓여 있는 가운데, 세수 확보 등을 통한 재정건전성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방·고령화·기술개발 등 재정 수요와 이자비용 부담이 가중되며 재정리스크가 심화
- IMF '25년 10월 Fiscal Monitor에서 전 세계 일반정부 부채 비율을 '29년 GDP 대비 100% 초과로 전망. '26년 GDP 대비 정부부채 비중은 일본 227%, 미국 129%, 프랑스 120%, 영국 105%, 중국 102%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
- 이로 인한 주요국 재정리스크 부각과 적자국채 발행에 대한 우려로 주요국 정책금리 인하 기초에도 불구하고 국채금리는 상승세가 이어지며, 이자 상황에 대한 부담이 가중

주요국 재정 상황 및 관련 주요 내용

국가	세부 내용
미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Y25 연방정부 총수입 5.2조 달러(전년대비 6.4% 증가), 총지출 7.1조 달러(전년대비 4.1% 증가), 재정적자 1.8조 달러(전년대비 2.2% 감소, GDP 대비 5.9%) - 사회보장·메디케어 등 필수지출은 증가한 가운데 법인세 감소에도 불구하고 관세 수입이 크게 증가하며 재정적자 감소 - 연방정부 공공부채 순이자 비용은 1조 290억 달러(전년 9,490억 달러 대비 8.3% 증가)로 1조 달러 돌파 • 미국 국가부채는 '25년 8월 37조 달러 돌파 후 두 달 후인 10월 기준 38조 달러(GDP 대비 약 121%) 기록 • CRFB(Committee for a Responsible Federal Budget)는 미국 재정적자가 FY26~FY35 누적 재정적자 규모 22.7조 달러로 추산, 동기간 순이자 지출은 14조 달러로 전망
영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국 국가부채는 '25년 10월 2.9조 파운드(GDP 대비 약 95% 수준)으로, 영국 정부는 증세를 통해 재정건전화를 도모 중이나 시장에서는 장기적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 지속 - FY24/25 정부 총수입 1,180억 파운드(전년대비 2.5% 증가), 총지출 1,330억 파운드(전년대비 4.1% 증가), 재정적자 150억 파운드(전년대비 10.0% 증가, GDP 대비 5.3%) 기록 - FY25/26 예산안에 따르면 ① 향후 3년간 260억 파운드 규모의 증세안 확정, ② 향후 3년 간 복지예산 확충 등 재정지출 160억 파운드 추가 편성, ③ '28년까지 완화적 재정정책 기초 유지 후 '29년 이후 긴축으로 전환되는 구조
일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본은 '18년부터 정부 재정개혁('25년 기초재정수지 흑자 전환 목표)을 추진하였으나 코로나19 및 정권 변화 등으로 지연 • '24년 말 기준 일본 정부부채는 GDP 대비 246.7%, 순부채비율 134.6%로 주요국 대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지속적인 재정리스크에 당면 • '25년 10월 21일 출범한 다카이치 내각은 아베노믹스를 계승하여 전략적 재정 역할을 강조. '25년 11월 정부 재정지출 21.3조 엔 외 지방자치단체·민간 참여 등을 통한 42.8조 엔의 경기부양책을 발표 - 이는 고물가 고착화 및 재정리스크를 확대시켜 일본 시장금리 상승 압력 및 통화 약세를 야기할 소지가 있음 - 이로 인해 일본은행의 '25년 12월 통화정책회의 시 정책금리 인상에 대한 시장 기대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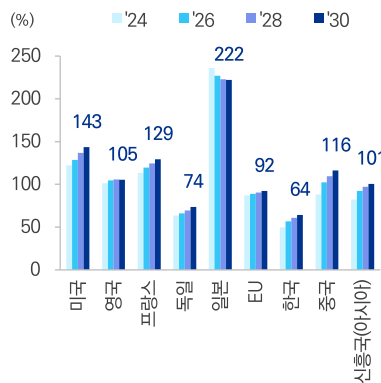
Source: OBR(2025.11) 'Economic and fiscal outlook', CFRB(2025.8.20) 'An August 2025 Budget Baseline', CBO(2025.11.10) 'Monthly Budget Review: Summary for Fiscal Year 2025', 언론보도 종합, 삼정KPMG 경제연구원

주요국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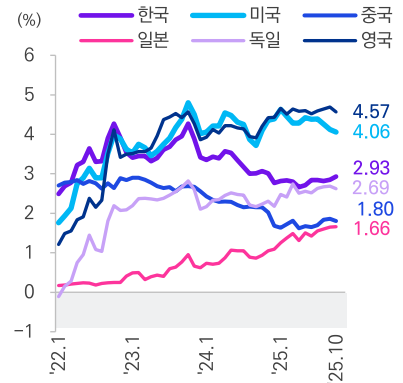
Source: IMF Fiscal Monitor DB(2025.12.1 검색), 삼정KPMG 경제연구원

주요국 GDP 대비 국가채무 비중



Source: IMF Fiscal Monitor DB(2025.12.1 검색), 삼정KPMG 경제연구원

주요국 장기 국채금리(10년물) 추이



Source: OECD, 삼정KPMG 경제연구원

④ 주요국 인플레이션 가능성을 고려한 완화적 통화정책 속도 조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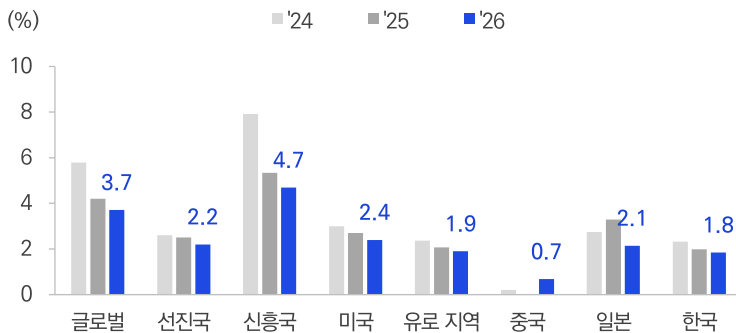
■ '26년 글로벌 선진국의 인플레이션은 2%에 근접하나, 신흥국은 상대적으로 높은 물가 수준 전망

- 세계 경제성장을 부진과 교역 둔화 등으로 원유 수요 증가세는 둔화되는 반면, 공급 여건이 개선되어 유가 하방 압력으로 작용. IMF는 연평균 국제유가가 '25년 12.9%, '26년 4.5% 하락할 것으로 전망
- 선진국의 인플레이션은 정책 목표(2%) 수준에 도달할 전망이나, 관세 및 재정 확대 등으로 인플레이션 상방 압력 상존

■ 최근 주요국은 인플레이션을 우려해 완화적 통화정책 속도를 조절 중으로 시장 기대 대비 인하 속도와 폭 둔화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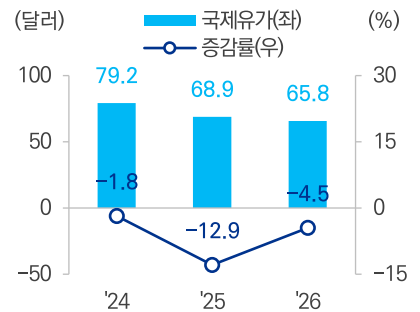
- '25년 12월 미국 통화정책 결정을 앞두고 미국 연준 내 의견이 대립 중으로 시장의 기대치가 크게 변동 중. IMF는 미국의 기준금리가 '26년 말 3.25~3.50%에서 '28년 말 2.75~3.00%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
- 유로 지역 정책금리는 '26년 한 차례 인하 후 2% 수준을 유지할 전망. 일본은 '24년 3월 이후 금리 인상을 통해 초저금리 국면에서 정상화로 전환 중이나, 다카이치 내각의 정책 변화로 예상 대비 금리 인상 가능성이 낮아짐
- 반면, 한국은행은 환율 급등과 부동산 가격 상승세 등으로 '25년 7~11월 연속 네 차례 기준금리 동결. 회의 의결문에서 1년간 유지해 온 '금리 인하 기조' 표현을 '금리 인하 가능성'으로 대체

글로벌 소비자물가지수 전망



Source: IMF(2025.10), 'World Economic Outlook', 삼정KPMG 경제연구원
Note: '25년은 추정치, '26년은 전망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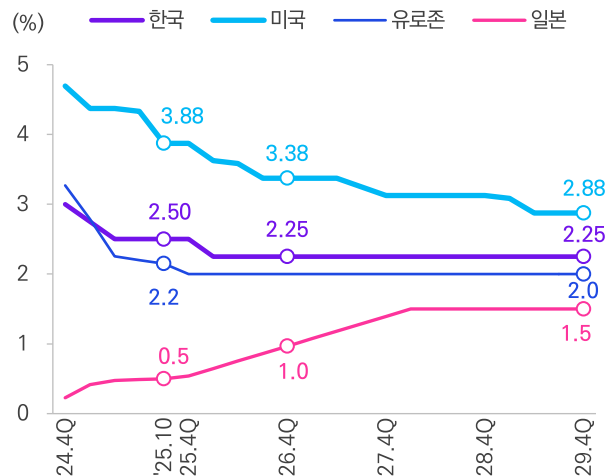
국제유가



Source: IMF(2025.10), 'World Economic Outlook', 삼정KPMG 경제연구원
Note: '25년은 추정치, '26년은 전망치

주요국 통화정책 변화 및 기준금리 전망

구분	기준금리 변화
미국	('23.7) 5.50% → ('24.9) 5.00% → ('25.10) 4.00% - '24년 9월 2년 6개월 만에 인하, 10월과 11월 추가 인하 후 동결 → '25년 9월과 10월 추가 인하
ECB	('23.9) 4.50% → ('24.6) 4.25% → ('25.6) 2.15% - '24년 6월 1년 11개월 만에 첫 인하 후 지속 인하하다 '25년 6월 이후 동결
영국	('23.8) 5.25% → ('24.8) 5.00% → ('25.8) 4.00% - '24년 8월 3년 7개월 만에 첫 인하 이후 네 차례 추가 인하, '25년 8월 이후 동결
한국	('23.1) 3.50% → ('24.10) 3.25% → ('25.5) 2.50% - '24년 10월 1년 9개월 만에 인하, 11월과 '25년 2월 추가 인하 → '25년 5월 추가 인하 후 7~11월 연속 네 차례 동결
일본	('16.1) -0.1% → ('24.3) 0.1% → ('25.3) 0.5% - 마이너스 금리 도입 17년 만인 '24년 3월 인상 후 두 차례 추가 인상 및 '25년 1월 이후 동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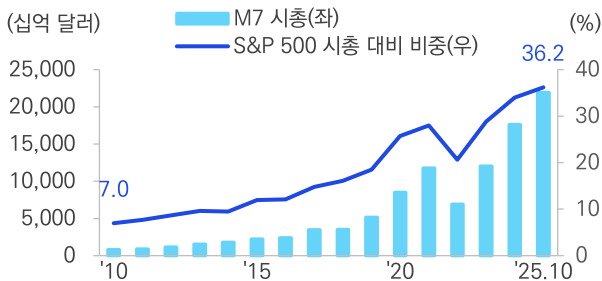


Source: IMF(2025.10), 'World Economic Outlook', Bloomberg Consensus(2025.11.20 기준), 삼정KPMG 경제연구원

⑤ 주요 자산 시장 급등과 고평가 이슈 및 달러 지위 약화

- 유동성 장세로 인한 에브리씽 랠리(Everything Rally) 가운데 레버리지 투자 증가 등으로 변동성 및 시스템 위험 우려
 - 미국 빅테크 M7(Magnificent 7) 중심의 주가 상승세로 주식시장 내 M7 집중도는 역사상 최고치를 기록. '25년 10월 FINRA 신용융자잔액(Margin Debt)은 1조 1,836억 달러로 역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며 레버리지 투자 확대
 - AI 등 신기술에 대한 투자는 생산성 증가와 경제 성장을 촉진할 수 있으나, M7 등에 대한 투자 집중과 레버리지 투자는 특정 기업·부문에 대한 충격이 주식 시장 전체로 파급될 수 있다는 우려 증가
 - 고공행진을 하던 가상자산 시장은 '25년 10월 10일 190억 달러 규모의 레버리지 청산 이후 시장 심리가 위축되며 당분간 조정 국면을 이어갈 수 있다는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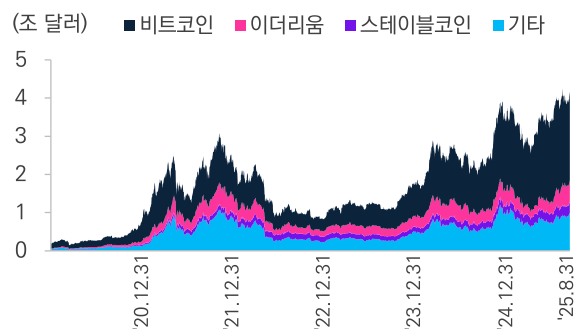
M7 시가총액 추이



Source: LSEG, 삼성KPMG 경제연구원

Note: M7에는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테슬라, 구글, 메타, 아마존, 엔비디아 등 7개사 포함

가상자산 시장 시가총액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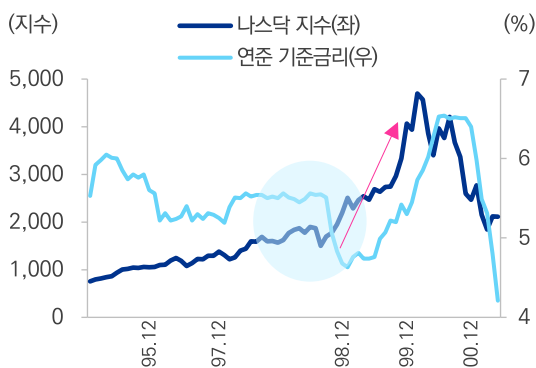


Source: LSEG, 삼성KPMG 경제연구원

■ 최근 AI 버블 논란이 거세며 '99년 닷컴 버블과 같은 시장 충격에 대한 우려 증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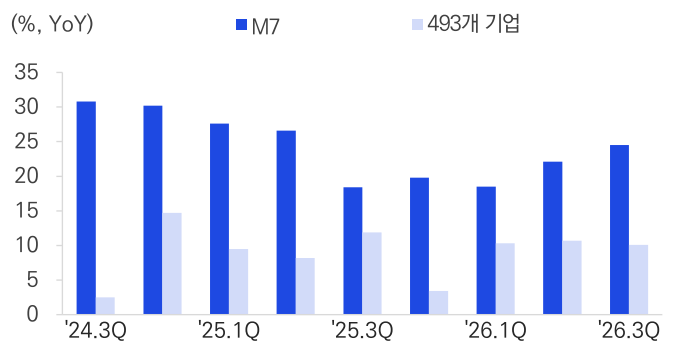
- 빅테크 기업을 중심으로 AI 버블 논란이 증폭. '99년 닷컴 버블은 금리 인하기 이후 발생, 당시 기술주 P/E(50~55배) 대비 현재 M7의 P/E(약 27배)는 절반 수준이며 실적과 수익 기반의 과열이라는 의견도 상존
- 그러나 ① M7 등의 이익 증가율이 둔화되는 양상이며, ② 대규모 투자 대비 실제 상용화와 수익 창출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 ③ 오픈AI·엔비디아·오라클 등 상호 간 순환계약(Circular Deals)을 통한 실적 부풀리기, ④ 사모대출과 30~50년 만기 회사채의 대규모 발행, 복잡한 파이낸싱 구조는 리스크 요인
- 금융시장 취약성이 높은 상황으로 시장 충격 시 AI 생태계와 주식시장 전반에 부정적 연쇄 반응 초래 가능

닷컴 버블 시기 나스닥 지수 추이



Source: FRED, 삼성KPMG 경제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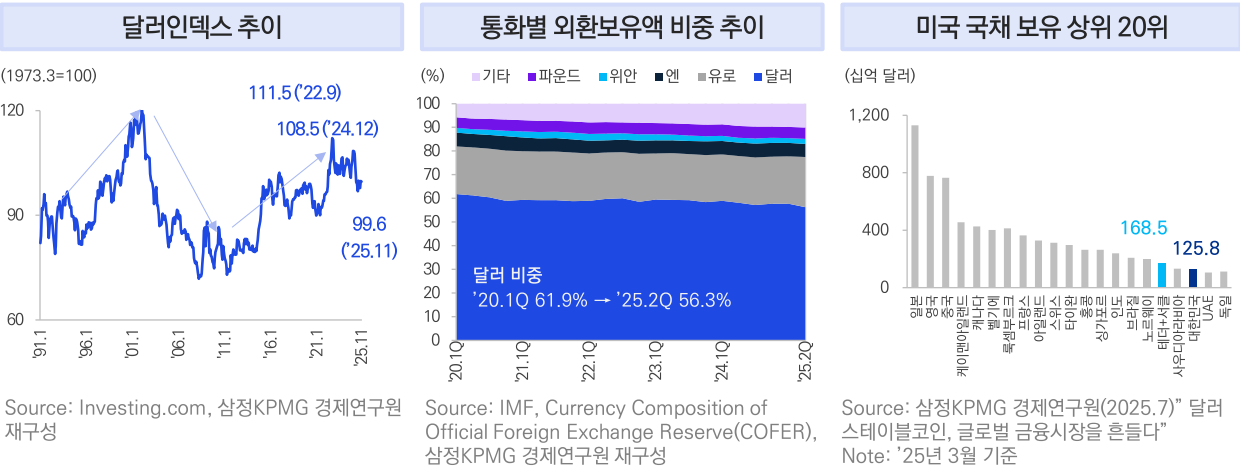
M7 등 미국 S&P 500 기업의 이익 성장률



Source: Factset(2025.11.24), "Magnificent 7" Companies Reported Lowest Earnings Growth Since Q1 2023", 삼성KPMG 경제연구원

■ 달러의 구조적 약세와 탈달러 기조 가운데 스테이블코인의 확산 가능성

- 달러인덱스는 '22년 이후 약세 구간으로 진입한 가운데 미 연준의 금리 인상과 트럼프 대통령 당선으로 '24년 12월 108.5를 기록 후 '25년 2분기 이후 100을 하회
- 과거 달러 약세('02~'08년)는 미국 달러·군사 패권하 글로벌 금리 차 축소, 신흥국 성장 등이 주요 요인이었던 반면, 최근에는 미국 재정 불안과 관세 정책 혼선에 따른 달러 신뢰도 저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러시아 등 관련국 대상의 미국 경제 제재 강화에 따른 탈달러 기조 및 미국채 수요 축소 등을 동반
- 미국 경제성장을 하락과 달러 약세를 표방하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불확실성, 연준 독립성 훼손 가능성에 따라 달러 약세가 지속될 수 있으나, 달러 스테이블코인이 글로벌 달러 패권을 지지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소지



■ 최근 아시아 지역 통화 약세와 대응 방안에 대한 고심

- 아시아 11개국의 '25년 10월 말 기준 외환보유액은 7.9조 달러에 육박, 달러 약세와 금값 상승에 힘입어 '24년 말 대비 2.8조 달러 이상 추가 보유 중
- '25년 하반기 이후 아시아 주요국 통화의 달러화 대비 약세 압력이 커지면서, 각국의 자국 통화가치 방어 필요성이 크게 부각.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가 이를 환율 조작으로 인식할 가능성과 향후 무역협상에 미칠 파장을 의식해 이에 대한 개입에 소극적일 수 밖에 없는 상황
- 아시아 통화 약세 지속 시, 해당 국가의 수입 물가 상승과 인플레이션 압력, 내수 부진 및 금융시장 불안 야기 가능



[2] 미국 경제

'26년 미국은 OBBBA법 시행 등으로 인한 단기 부양 효과로 경제성장을 개선 전망

■ '26년 미국 경제성장률은 OBBBA법 시행 등의 영향으로 민간소비와 투자가 성장 견인 전망

- '25년 순이민자 감소 등으로 민간소비가 위축되면서 실질 GDP 성장을 둔화. '26년 OBBBA법 시행과 정부 지출 증가에 따른 총수요 부양 효과로 민간소비와 투자가 성장 견인 전망. 그러나 '27~'28년은 부양 효과 축소 예상
- 자산효과(Wealth Effect) 등으로 고소득층을 중심으로 소비 증가가 지속 확장될 소지
- '25년 관세로 인한 기업 마진 축소와 이민자 감소 등 노동수요·공급이 모두 축소되며 고용 시장 위축. '26년 경기 개선으로 노동수요·공급이 모두 증가하며 단기적으로 실업률 등이 개선될 전망이나 중장기 고용 시장은 악화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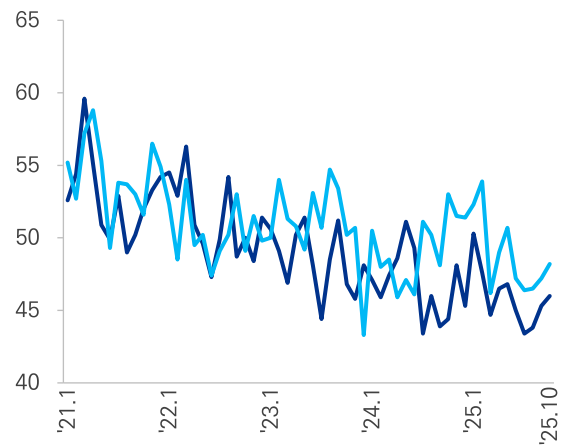
GDP 구성 항목별 성장률 전망

		(%)		
구분		'24년	'25년	'26년
실질 GDP 성장률		2.5	1.4	2.2
	소비지출	3.1	1.0	1.7
	기업고정투자	2.4	4.6	3.4
	주거투자	3.0	-3.0	1.7
	정부지출	3.3	0.7	1.3
	수출	3.1	-5.0	2.4
	수입	5.6	-3.7	0.6
	재고 투자	16.5	27.9	21.1
인플레이션	PCE	2.5	3.1	2.4
	CPI	2.7	3.1	2.4
실업률		4.0	4.5	4.2

Source: CBO(2025.09) 'CBO's Current View of the Economy from 2025 to 2028', 삼정KPMG 경제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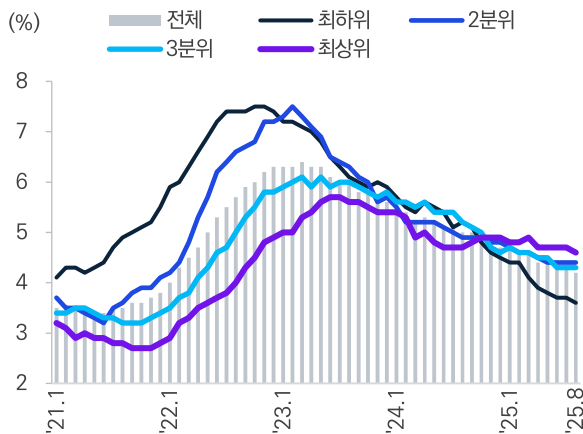
미국 고용상황 지수

(지수) — ISM 제조업 고용지수 — ISM 서비스업 고용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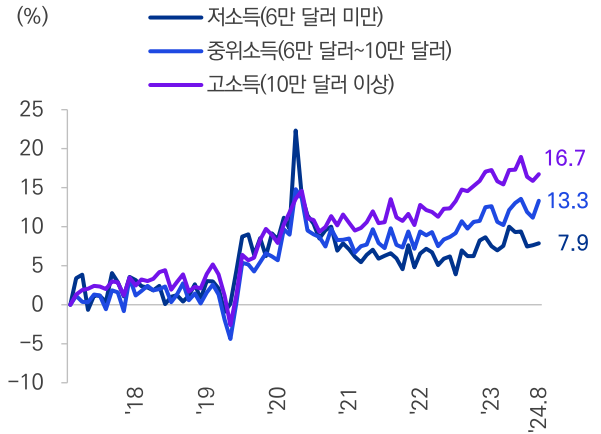
Source: ISM, 삼정KPMG 경제연구원

미국 임금소득 분위별 임금 상승률 추이



Source: Atlanta Fed, 삼정KPMG 경제연구원

미국 임금소득 분위별 소비증가율 추이



Source: FEDS Note(2024.10.11) 'A Better Way of Understanding the US Consumer: Decomposing Retail Spending by Household Income', 삼정KPMG 경제연구원

AI 관련 산업을 중심으로 한 정부와 기업의 설비투자가 성장 견인 전망

■ 미국 정부의 AI 생산성 강화 정책과 민간의 AI 자본지출 등이 성장 견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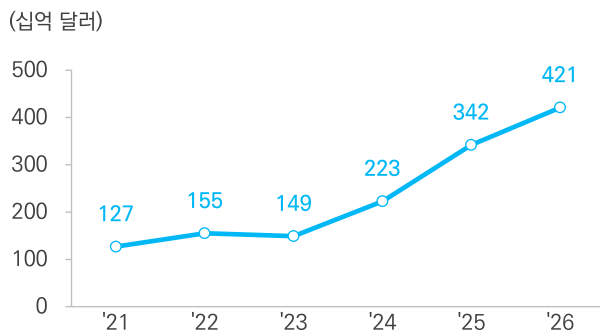
- 트럼프 행정부는 AI·반도체 등 첨단산업 육성의 인프라 기반을 마련하고, 민간 기업은 AI 관련 대규모 투자 지속
- CAPEX/GDP 비율은 약 29~30% 수준으로 회복세를 이어가며 장기 평균(27%)을 상회할 전망
- 미국 주요 빅테크 기업의 AI 관련 자본지출은 '23년 대비 두 배 이상 증가하며 투자 모멘텀을 주도하는 가운데 향후 대규모 투자에 대한 재원 조달과 수익성 확보에 대한 우려는 지속될 전망

미국 CAPEX/GDP 추이



Source: FRED, 삼성KPMG 경제연구원

미국 주요 기업 AI 관련 자본지출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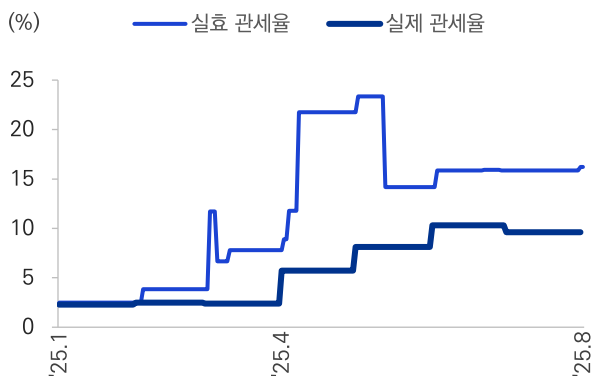
Source: 금융연구원(2025.11), '2026 경제전망', 삼성KPMG 경제연구원
Note: '25년은 추정치, '26년은 전망치

인플레이션 안정 추세이나 관세와 재정 확대 효과로 상방 리스크 존재

■ '26년 인플레이션 전망치는 2% 중반으로 연준 목표치를 상회하는 가운데 잠재적 압력 요인 상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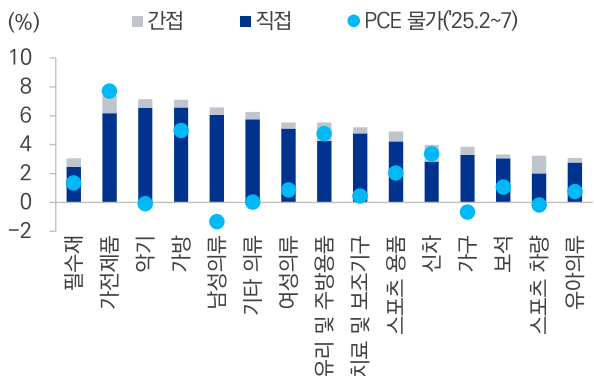
- 미국 실제 관세율은 실효 관세율보다 6%p 이상 낮은 수준이며, '25년 상반기까지는 기업들이 관세 비용을 상당 부분 흡수하여 실제 소비자에게 전가하지는 않은 상황. 그러나 하반기 관세 인상 효과가 직접적으로 나타날 가능성
- 연준의 '25년 9월 전망 PCE 인플레이션 중앙값은 '26년 2.6%, '27년 2.0%로 '25년 6월 전망('26년 2.4%, '27년 2.1%) 대비 상향 조정
- '26년 관세 인상의 효과를 상쇄하는 감세 등으로 총수요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에 연준의 물가 목표치(2%)를 상회하는 물가 상승 압력이 존재

미국 관세율



Source: IMF(2025.10), 'World Economic Outlook', 삼성KPMG 경제연구원

관세의 물가 전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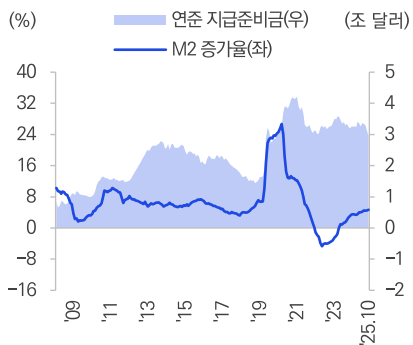
Source: IMF(2025.10), 'World Economic Outlook', 삼성KPMG 경제연구원

완화적 통화정책의 속도를 조절 중이며, 2026년 5월 연준 의장 선임이 변곡점이 될 것으로 예상

■ 미국의 통화정책은 완화적 스탠스로 변화 중이나 속도 조절에 나선 상황. 중장기적으로 완화 기조를 이어갈 전망으로 '26년 두 차례 금리 인하에 나설 것으로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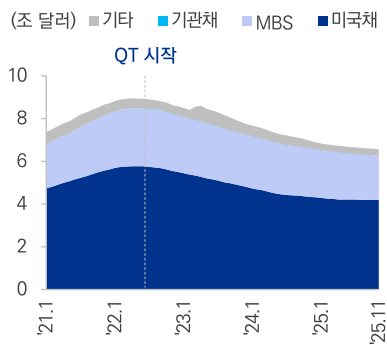
- 미국 연준이 '22년 1월부터 QT(Quantitative Tightening, 양적긴축)를 시행한 이후 3년 반 동안 연준 자산은 '22년 5월 8.9조 달러에서 '25년 10월 6.6조 달러로 축소. 역레포('25년 10월 0.3조 달러)와 준비금('25년 10월 2.9조 달러)은 동기간 각각 1.8조 달러, 0.4조 달러 감소
- 유동성이 축소되는 과정에서 미국이 재정적자 보전을 위해 단기채 발행과 차환에 의존하면서 자금시장 불안을 야기. 연준은 '25년 10월 레포 시장 불안을 근거로 12월부터 QT 종료 예정. 이를 통해 단기 시장 불안 요인 해소 및 시장 내 유동성 완화가 가능하나, 인플레이션 재점화 및 자산가격 버블 리스크도 존재

M2 증가율 및 연준 지급준비금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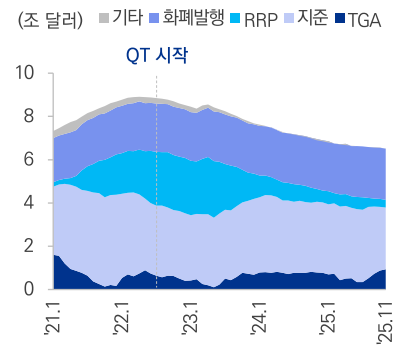
Source: FRED, 삼정KPMG 경제연구원 재구성

연준 B/S 중 자산 주요 항목



Source: FRED, 삼정KPMG 경제연구원 재구성

연준 B/S 중 부채 주요 항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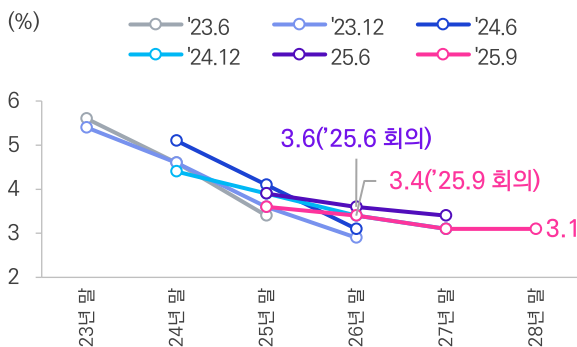


Source: FRED, 삼정KPMG 경제연구원 재구성

- 친 트럼프 인사 스티브 마이런 연준 이사 지명과 트럼프 대통령의 지속적인 금리 인하 압박 등으로 미국 연준 독립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25년 12월 FOMC 회의를 앞두고 연준 이사 간 의견 분열 중

- FOMC는 고용 시장 약화 대응을 위해 '25년 9~10월 두 차례 기준금리 인하 후 11월은 3.75~4.00% 동결. 12월 FOMC 회의 결과에 대한 시장의 혼란이 높은 가운데 FOMC의 '26년 기준금리 전망치는 3.4%로 시장에서는 '26년 두 차례 기준금리 인하 전망이 우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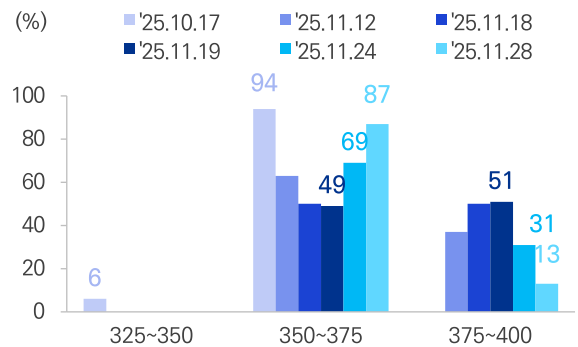
미국 FOMC 기준금리 목표 전망



Source: FOMC, 삼정KPMG 경제연구원

Note: 중앙값

FOMC 12월 기준금리 시장 전망치



Source: FedWatch, 삼정KPMG 경제연구원

- '26년 5월 파월 연준 의장 교체 이후 본격적인 금리 인하 사이클에 들어갈 소지가 높으며, 향후 연준 독립성에 대한 이슈는 지속될 가능성이 높음
 - 트럼프 대통령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임기('26년 5월 종료)를 앞두고 차기 의장 후보를 5명으로 압축했으며, 크리스마스 전에 지명 발표 가능성이 높음
 - '25년 12월 1일 기준 벤틱사이트 폴리마켓(Polymarket)에서는 케빈 하셋의 지명 확률을 57%로 예상. 케빈 하셋이 감세·규제 완화·공급 확대 등을 추진하며 미국 산업 전략과 연계한 통화정책을 운용할 가능성 부각

차기 연준 의장 후보				
크리스토퍼 월러 (Christopher Waller)	미셸 보우먼 (Michelle Bowman)	케빈 워시 (Kevin Warsh)	케빈 하셋 (Kevin Hassett)	릭 라이더 (Rick Ried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년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연준 이사로 지목 통화정책의 유연성과 경제성장 및 시장안정 간 균형 추구 고용 우려로 '25년 12월 금리 0.25% 인하 주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25년 3월 연준 이사·부위원장(감독 담당)으로 선임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저금리와 금융 규제 완화 주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 연준 이사('06~'11년), 금융위기 당시 버냉키 의장을 보좌 매파 성향으로 평가되며 물가안정과 통화 긴축을 지지할 가능성 및 연준 독립성 중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 트럼프 1기 대규모 감세법안 주도 및 OBBBA 추진 감세와 규제 완화 등을 통한 경제성장과 노동시장 개선 등 공급경제학 지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BlackRock 글로벌 채권 CIO 연준 직접 경험 없으나 금융시장 통찰력과 대형 투자기관 운용 경력, 유일한 민간 후보 실용주의적 통화정책 운용 가능성

Source: 언론보도 종합, 삼정KPMG 경제연구원

2026년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물가 안정 차원의 정책 변경 가능성 존재

- 미국 내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이 급격히 낮아지고 있으며, '26년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기존 트럼프 정부의 정책 변경 가능성 존재
 - 물가에 대한 미국인들의 우려가 점점 커지면서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이 집권 2기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
 - '25년 11월 3~25일 실시된 미국 갤럽 여론조사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직무 수행 지지율은 36%(전월대비 5%p 하락)로 집권 2기 중 최저 수준을 기록. 특히, 경제(36%), 중동 정세(33%), 연방 예산(31%), 우크라이나 사태(31%), 건강보험 정책(30%) 등에서 부정적 평가
 - 관세 부과로 인한 비용 부담과 물가 압력 등 완화를 위해 최근 소비자 체감도가 큰 품목에 대한 관세를 일괄 인하하는 방안 등을 제시하며 정책 선회 가능성 대두

최근 트럼프 행정부 정책 변경 사항	
시점	세부내용
'25.11.10	• 고소득층을 제외한 모든 이에게 최소 2천 달러의 배당금 현금 지급 언급
'25.11.13	• 커피, 바나나, 각종 과일 등 미국 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품목들에 대한 관세 인하 조치 가능성 언급
'25.11.14	• 커피, 소고기, 바나나, 토마토, 아보카도, 견과류 등 200여개 수입 품목에 대한 상호관세를 면제
'25.11.21	• 소고기, 커피, 코코아, 과일 등 브라질 특정 농산물에 대한 40% 관세를 철폐하는 행정명령에 서명 - '25년 11월 13일 이후 미국에 수입된 브라질 수입 농산물에 소급 적용

Source: 언론보도 종합, 삼정KPMG 경제연구원

[3] 한국 경제

2026년 한국 경제성장률 1.6~2.1%로 올해 대비 개선세 전망

- '26년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1.6~2.1%로 미국 관세 영향으로 수출 둔화 예상되나 민간소비, 건설 등 회복세
 - '25년 건설경기 위축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중심 수출 호조, 추경 등을 통한 내수 회복세로 경제성장률 개선
 - '26년에는 정부 확장 재정을 바탕으로 민간소비 회복 가능성. 건설투자는 재개발과 재건축 등 민간 주택부문의 건설 수주 등에 힘입어 부진 완화 가능하나 착공까지의 시차 및 지방 부동산 경기 부진 등 하방 압력도 상존
 - '26년 AI 관련 인프라 투자와 SOC 확대, 정부의 R&D 지원과 주요 기업의 연구개발 증가로 설비투자과 지식재산생산물투자도 개선될 수 있음. 수출은 반도체의 경우 견조한 흐름을 예상하나 미국 관세 영향으로 전반적 둔화 전망
 - 물가 상승률은 환율 상승과 유가 하락이 상반된 영향을 미치며 최근 2% 수준에 근접하고, 기대 인플레이션도 하향 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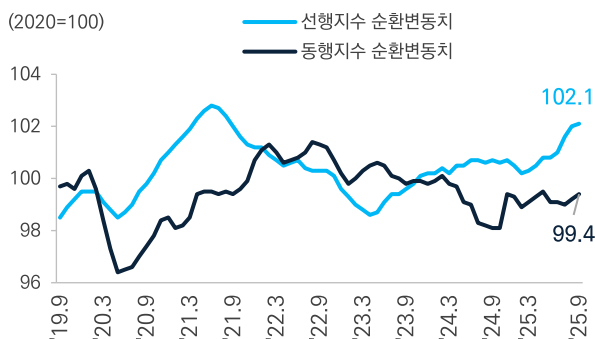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25년 11월 기준)

구분	'24년				'25년				'26년				변동치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GDP 성장률	2.0	0.3	1.8	1.0	2.2	1.5	1.8	+0.2					
민간소비	1.1	0.7	1.9	1.3	2.2	1.3	1.7	+0.1					
건설투자	-3.3	-12.2	-5.3	-8.7	2.5	2.7	2.6	-1.2					
설비투자	1.7	4.5	0.8	2.6	2.8	1.3	2.0	+1.0					
지식재산생산물투자	1.2	1.9	4.0	3.0	3.5	2.7	3.1	+0.6					
재화수출	6.4	1.7	4.0	2.3	2.3	0.5	1.4	+2.5					
재화수입	1.3	1.7	2.9	2.3	4.1	0.8	2.4	+1.4					

Source: 한국은행(2025.11), '경제전망 Indigo Book', 삼정KPMG 경제연구원
 Note: 변동치는 한국은행 2025년 8월 전망 대비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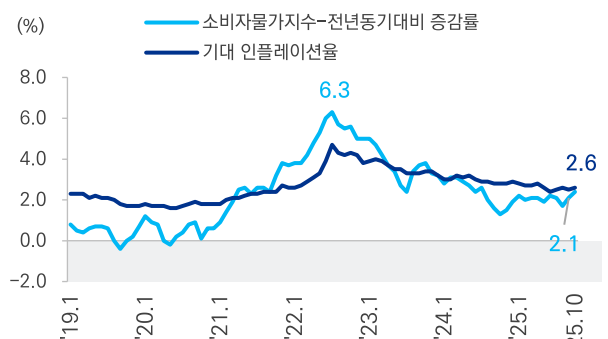
Source: 각 기관 해당시점 2026년 경제전망 보고서, 삼정KPMG 경제연구원

경기종합지수 추이



Source: 한국은행, 국가데이터처, 삼정KPMG 경제연구원

물가지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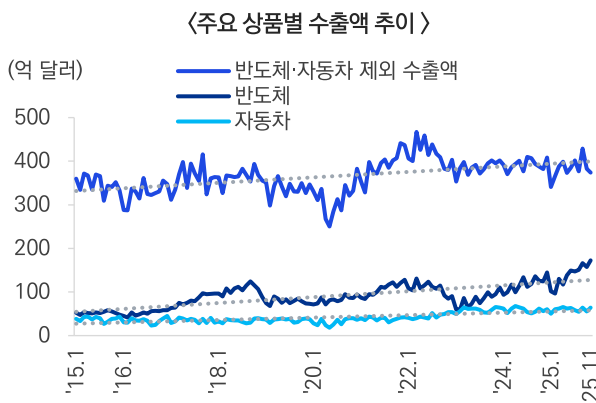
Source: 한국은행, 국가데이터처, 삼정KPMG 경제연구원

반도체·자동차 부문의 교역 약화는 한국 수출에 하방 위험으로 적용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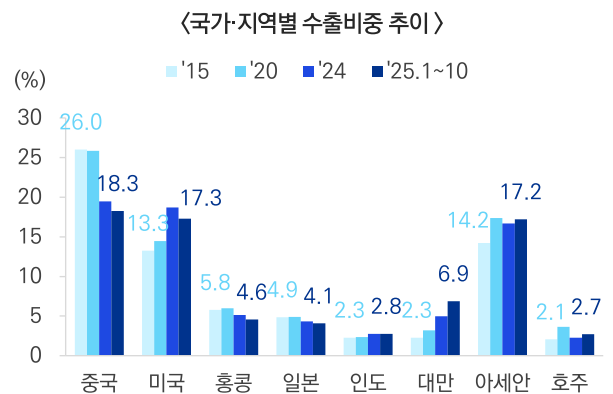
■ 글로벌 제조업 경기 둔화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여파로 한국 수출 증가세 둔화는 불가피

- AI·반도체 등 신성장 산업은 데이터센터 투자 확대에 따라 수요 회복세를 보이는 반면, 철강·자동차부품·기계 등 관세 민감 산업은 수출 둔화세가 지속. 마·중 관세 조정 상황에 따라 수요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도 존재
- 주요 수출국 중 중국 비중은 감소세인 반면, 아세안과 대만 비중은 증가세. 이는 한국의 교역 대상국 다변화 및 보호무역주의 강화에 따라 역내 중간재 교역 확대를 모색하는 국내 기업의 적극적 행보 반영
- 향후 수출 흐름은 반도체 사이클의 회복세 유지 및 관세정책 향방이 좌우할 전망. AI·첨단 기술과 전통 제조업이 공존하는 현 수출 구조에서는 기술 경쟁력 강화와 수출 시장 다변화 전략이 동시에 요구됨

한국 수출 동향



Source: 산업통상자원부, 한국무역협회, 삼정KPMG 경제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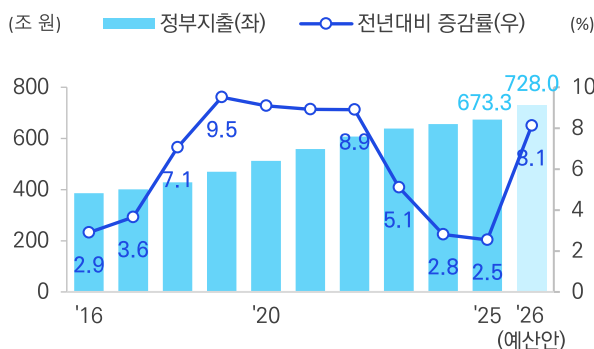


2026년 역대급 슈퍼 예산, 728조 원 규모의 확장 재정 편성

-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AI 및 R&D 분야 집중 투자 등 728조 원 재정 편성, 110조 원의 적자국채 발행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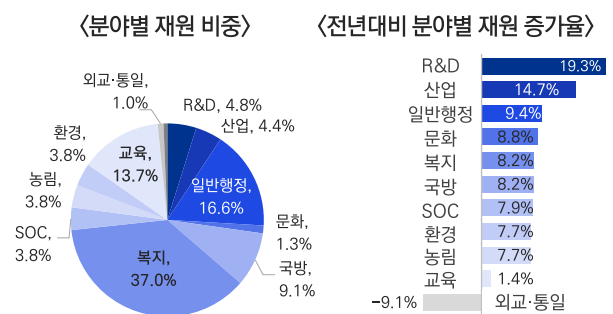
- '26년도 중앙정부 예산안은 총지출 728조 원으로 편성되어 올해 본예산(673.3조 원) 대비 8.1% 증가했으며, 이는 '22년도 예산안 이후 4년 만에 가장 높은 증가율이자 전임 정부의 긴축 재정에 마침표를 찍는 전면적인 확장 재정
- 총지출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한 110조 원의 적자국채 발행 계획. 이로 인해 국가채무는 1,415.2조 원으로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올해 48.1%에서 내년 51.6%로 3.5%p 상승

정부 예산안 차이



Source: 기획재정부, 삼정KPMG 경제연구원

'26년 분야별 자원 배분



Source: 기획재정부, 삼정KPMG 경제연구원

한국은행 기준금리 2025년 하반기 네 차례 연속 동결, 기준금리 인하 사이클 종료 가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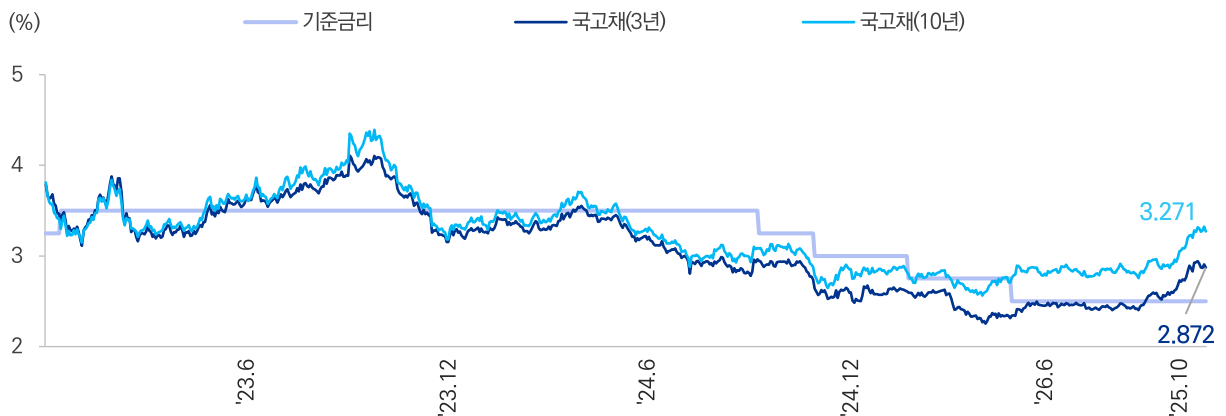
■ 금리 인하 여력이 충분하지 않은 가운데 한국은행 '금리 인하 종료' 가능성 시사

- 한국은행은 경기 하방 리스크 완화를 위해 '24년 10월과 11월 연속으로 기준금리를 인하한 데 이어, '25년 상반기에도 두 차례 추가 인하. 이후 부동산, 환율 등 금융안정 위험 요인에 대한 부담으로 '25년 하반기 7, 8, 10, 11월 네 차례 연속으로 기준금리 동결(연 2.50%)
- '25년 11월 한국은행은 통화정책 의결문 문구를 '인하 기조'에서 '인하 가능성'으로 변경하며 인하와 동결 가능성 모두를 열어둔 상황이나, 시장은 '26년 기준금리 인하 사이클 종료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상황

■ 국고채 금리 역시 기준금리 동결 및 국고채 적자국채 발행으로 상승 가능성, 발행 물량 증가로 수급 불확실성 상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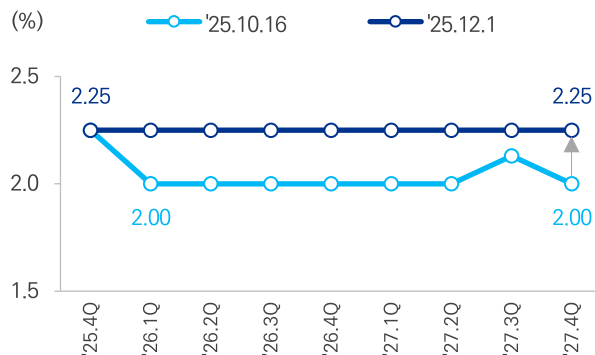
- '25년 추경 등으로 국고채 발행 물량이 증가하면서 하반기 국고채 금리는 상승세
- '26년 한국 국고채 발행 계획은 약 232조 원으로 전년과 유사한 수준, 이 중 국고채 순증 규모는 약 115.7조 원, 차환(재발행) 규모는 약 116.2조 원으로 추산되며 역대 최고치 전망
- WGBI 편입 효과가 예상되나 수급 불확실성이 높을 전망이며, 기준금리 인하 사이클 종료 기대가 높은 상황으로 국고채 및 채권 금리는 상방 압력 예상

국내 기준금리 추이 및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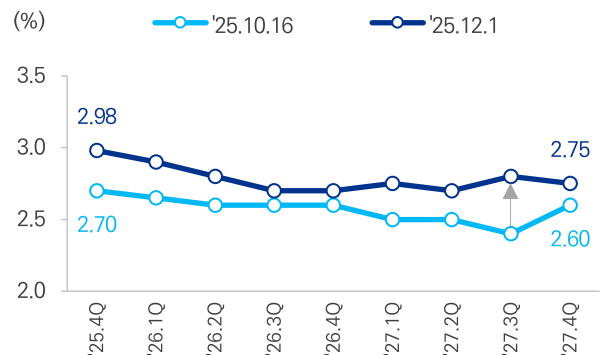


Source: 한국은행, 삼성KPMG 경제연구원

한국은행 기준금리 전망



한국 국채 10년물 전망



Source: Bloomberg(2025.12.1 기준), 삼성KPMG 경제연구원
Note: 중앙값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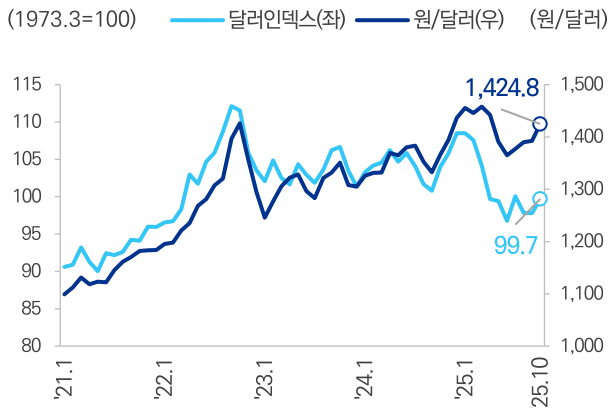
Source: Bloomberg(2025.12.1 기준), 삼성KPMG 경제연구원
Note: 중앙값 기준

원/달러 환율 최근 급등, 상방 압력이 지속되며 당분간 1,400원대 이상 전망

■ 국내 수출 호조와 달러 약세에도 불구하고 원화 약세 심화 … 구조적 요인으로 단기 해소 난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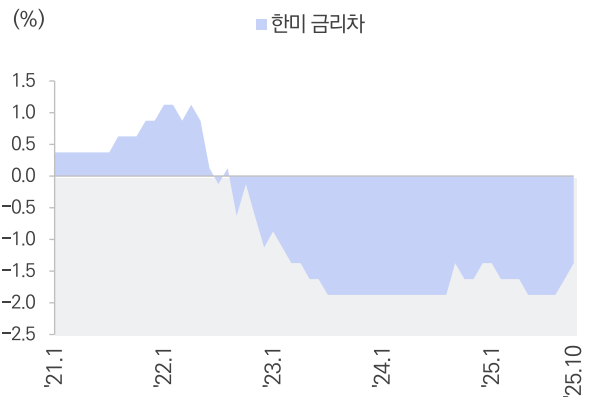
- '25년 3월 이후 달러 인덱스가 100을 하회하고 수출 호조로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24년 990억 달러에 이어 '25년 1,150억 달러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원/달러 환율은 '25년 들어 1,400원을 지속 상회
- 이는 ① 한미 간 경제성장률 역전과 기준금리 차, ② 3,500억 달러의 대미투자펀드(연 상한 200억 달러로 10년간 2,000억 달러 현금 투자 및 1,500억 달러 조선업 협력)와 1,500억 달러 수준의 주요 기업의 대미 직접 투자 계획에 따른 중장기 달러 수요 증가 가능성, ③ 개인투자자와 연기금의 해외주식 등 투자 확대, ④ 수출기업의 달러 환전 필요성 증대, ⑤ 미국 대비 한국의 원화 공급 증가('22년 1월~'25년 9월 중 M2 증가율이 미국은 2.9%인 반면 한국은 21.6%), ⑥ 한국 외환시장의 참여자 제한 및 하부구조 미성숙 등 구조적 요인이 작용
- 미국의 섣다운 기간 중 달러 유동성 경색 등 단기적 불안 요인은 해소되었으나, 구조적 요인은 단기적으로 해소되기 어려울 전망이며 이에 최근 원화 약세에 대한 전망이 우세

달러인덱스 및 원/달러 환율 추이



Source: 한국은행, LSEG, 삼성KPMG 경제연구원

한미 금리차 추이



Source: 한국은행, LSEG, 삼성KPMG 경제연구원

달러인덱스와 원/달러 환율 전망

달러인덱스 전망 (1973.3=100)					
구분		'25.9.2	'25.10.1	'25.11.1	'25.12.1
분기	'25.4Q	97.3	96.3	97.4	97.5
	'26.1Q	96.5	95.9	96.4	96.9
	'26.2Q	95.8	95.4	95.5	96.2
	'26.3Q	—	95.0	95.0	95.7
연간	'26년	93.8	94.0	94.6	95.1
	'27년	93.4	93.4	93.8	95.2

원/달러 환율 전망 (원/달러)					
구분		'25.9.2	'25.10.1	'25.11.1	'25.12.1
분기	'25.4Q	1,370	1,370	1,380	1,410
	'26.1Q	1,358	1,355	1,370	1,390
	'26.2Q	1,340	1,340	1,350	1,370
	'26.3Q	1,340	1,340	1,345	1,360
연간	'26년	1,325	1,340	1,335	1,350
	'27년	1,235	1,250	1,300	1,300

Source: Bloomberg(2025.11.20 기준), 삼성KPMG 경제연구원



2026년 산업별 전망





반도체 공급 제약과 단가 상승이 주도할 반도체산업의 성장

2026년 글로벌 반도체 시장 전망

- '26년 반도체산업은 IC 제품군의 성장세가 반도체 시장을 이끌어갈 것으로 보이며, AI 시대 데이터 처리 수요 대응을 위한 로직 반도체와 메모리군의 HBM(고대역폭메모리) 등 고성능 반도체가 성장의 핵심 요소로 자리
 - '25년에는 로직과 메모리 반도체 중심의 IC(Integrated Circuit) 제품군의 성장폭이 크게 나타난 것으로 분석. '26년에도 전 제품군에서 성장세가 나타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로직과 메모리 반도체가 성장을 지속 견인할 것
 - '25년 반도체 시장은 미주와 아시아-태평양 지역이 성장세를 주도하였으며, '26년에는 미주, 아시아-태평양 지역이 전년대비 20% 이상 성장세를 이어감과 함께 일본, 유럽에서도 10% 이상의 성장세가 나타날 것으로 보임

글로벌 반도체 시장 성장률 전망						
제품	시장 규모(백만 달러)			전년대비 성장률(%)		
	'24년	'25년	'26년	'24년	'25년	'26년
개별 반도체	31,026	30,900	33,436	-12.7	-0.4	8.2
광전자	41,095	42,597	45,020	-4.8	3.7	5.7
센서	18,923	20,894	22,713	-4.1	10.4	8.7
IC	539,505	677,852	874,291	25.9	25.6	29.0
- 아날로그	79,588	85,552	91,988	-2.0	7.5	7.5
- 마이크로	78,633	84,839	96,620	3.0	7.9	13.9
- 로직	215,768	295,892	390,863	20.8	37.1	32.1
- 메모리	165,516	211,568	294,821	79.3	27.8	39.4
전체	630,549	772,243	975,460	19.7	22.5	26.3

Source: WSTS(세계반도체무역통계기구), 삼정KPMG 경제연구원
Note: '25년은 추정치, '26년은 전망치

2026년 반도체산업 주요 이슈

- AI 중심의 반도체 수요 확대가 반도체 공급 제약과 단가 상승을 유도하며 반도체 기업의 매출 확대를 이끌 것
 - 데이터센터 시설 확충 등 AI 반도체 수요가 확대되며 HBM 등 메모리 및 시스템 반도체의 고성능 반도체 중심으로 생산 체계가 이동
 - 비교적 마진이 낮았던 DRAM, NAND 등 범용 반도체 시장에서는 공급 제약 등으로 인한 가격 상승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



스마트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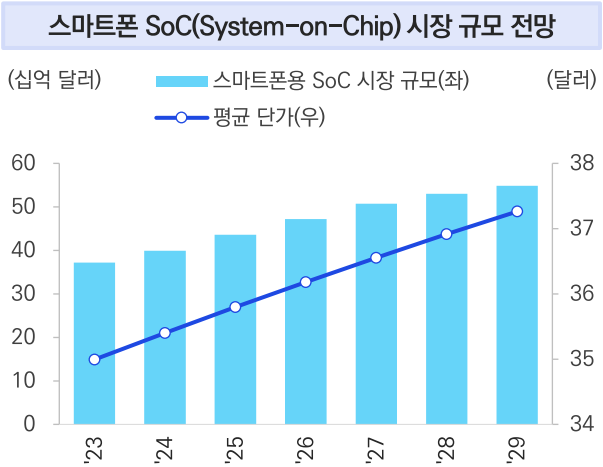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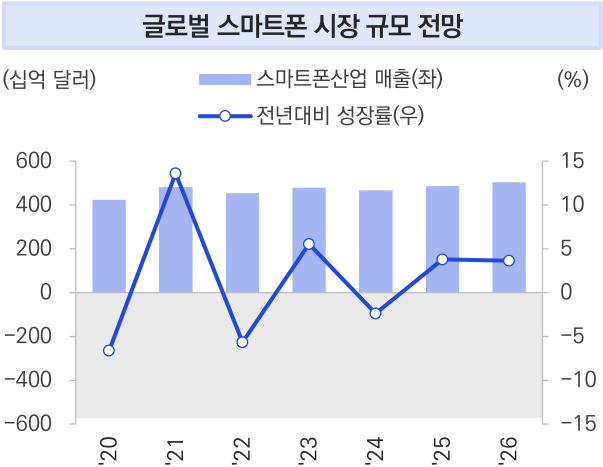
AI 시대 스마트폰 AP 확보와 폼팩터 혁신 경쟁 주목

2026년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 전망

- '26년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은 '25년 대비 3.7% 확대된 5,031억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
 -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은 '24년에 전년대비 2.4% 감소한 4,676억 달러 수준의 규모를 나타냈으나, 이후 반등하여 '25년부터 2년 연속 3% 후반대의 성장세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

2026년 스마트폰산업 주요 이슈

- 시가 '25년부터 스마트폰 경쟁의 핵심 요소로 본격적으로 부상한 데 이어, '26년에도 고성능 태스크 구현 역량 확보가 스마트폰 시장의 핵심 경쟁 요소가 될 것
 - AI 성능을 강화한 삼성전자의 갤럭시 라인업 확대, '24년 10월 출시된 '애플 인텔리전스' 기능을 포함한 애플 아이폰의 AI 도입 등 AI 기반 혁신 기술이 스마트폰 시장 속 차별화의 주요 요소
- AI 등 스마트폰의 고성능 구현 역량이 경쟁력의 주요 요소로 부각됨에 따라 우수한 AP 확보를 위한 경쟁이 치열
 - AI 기능 등 고성능 구현을 위해 AP(Application Processor) 등 스마트폰용 고성능 반도체의 중요성이 부각
 - 스마트폰용 SoC(System-on-Chip) 평균 단가 지속 상승과 메모리 가격 상승에 따른 원가 부담이 스마트폰 가격 인상을 유발할 가능성이 제기됨에 따라, 스마트폰 가격 상승 시 수요에 끼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원가 경쟁력 확보 방안이 필요
- 초슬림폰의 등장으로 화제를 모은 '25년 스마트폰 시장에 이어, '26년은 다시 폼팩터 혁신이 주목 받을 전망
 - '25년은 삼성전자의 '갤럭시 S25 엣지', 애플의 '아이폰 에어' 등 초슬림폰이 새롭게 등장하며 화제를 모음
 - '26년에는 '25년 12월 출시 예정인 삼성전자의 트라이폴드폰(화면을 2번 접는 스마트폰), 애플의 폴더블폰 등 폼팩터 혁신에 기반한 스마트폰 시장 변화가 주목될 전망



Source: Statista, 삼정KPMG 경제연구원
Note: '25년은 추정치, '26년은 전망치

Source: MarketsandMarkets, 삼정KPMG 경제연구원
Note: '25년은 추정치, '26~'29년은 전망치



디스플레이

중국과의 차별화 위한 한국의 차량용·모바일 중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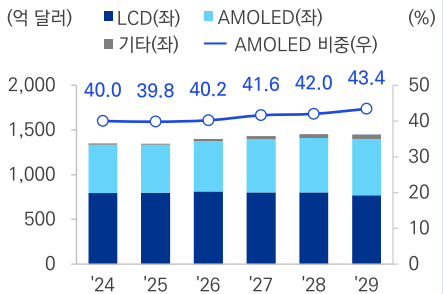
글로벌 디스플레이 시장 규모 및 시장 점유율 추이 및 전망

- '26년 세계 디스플레이 시장 1,399억 달러, 전년대비 한 자릿수 성장

 - '25년 세계 디스플레이 시장은 전년대비 0.3% 감소할 것으로 추정. '26년에는 3.9%의 한 자릿수 성장세 전망
- AMOLED 비중 '26년 40% 돌파 예상

 - LCD 공급 과잉 등에 따라 한국 기업들은 LCD 사업에서 철수 및 LCD 생산라인의 점진적 축소를 진행한 바 있음
 - 한국 기업의 AMOLED 중점 전략이 정밀화되는 가운데, 글로벌 디스플레이 시장에서 AMOLED가 '26년 40.2%의 비중을 차지하며 40%대 재진입 후 '27~'29년 점진적 비중 확대 전망

세계 디스플레이 시장 전망(금액 기준)



Source: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 OMDIA
 Note1: 기타에 Micro LED 포함
 Note2: OLED 시장에는 AMOLED와 PMOLED가 존재하는 가운데 '25년 기준 AMOLED가 99.7%, PMOLED가 0.3% 비중을 차지
 Note3: '25년은 추정치, '26~'29년은 전망치

2026년 디스플레이 시장 주요 이슈

- 중국의 글로벌 디스플레이 시장 점유율은 '21년부터 한국을 앞지르며 전 세계 1위를 유지 중

 - 중국은 과거 LCD 주력 시기를 지나며, OLED와 마이크로LED, 디스플레이 원재료, 부품, 설비 등에서 기술 혁신을 추구하고 있음. 과거 중국의 디스플레이 관련 투자는 주로 LCD 후공정 분야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으나 중국 기업의 LCD 관련 전공정 투자 촉진 및 OLED로의 투자 또한 본격화되었음. 중국 정부의 디스플레이 지원 정책 또한 강화되어 '21년부터 연속 5년째 글로벌 시장 점유율 1위 유지 중
- 한국 디스플레이 패널 수출 '23년 감소, '24년 소폭 성장… 차세대 제품으로의 전환 속도 가속화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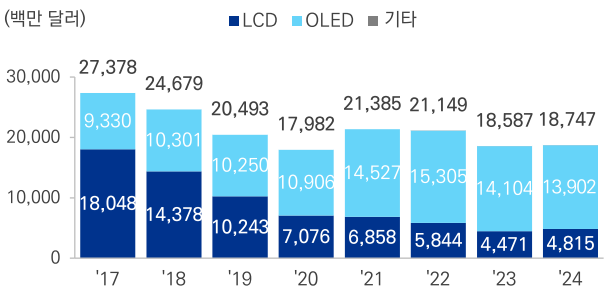
 - 한국의 디스플레이 패널(OLED, LCD) 수출액은 중국의 디스플레이 굴기 영향 등에 따라 '18년부터 '20년까지 역성장을 보임. 이후 '21년 전년대비 약 19%의 수출 성장을 보였지만 '23년에 다시 감소 후 '24년 소폭 성장
 - 한국 기업은 디스플레이 밸류체인별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 탐색, 트럼프 2.0 시대 속 국가 간 협력·경쟁 관계 변화, 각 국가 정부의 정책 동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디스플레이 사업 전략을 재수립하고, 차량용·모바일 등 고부가가치 제품 중심 전략으로 고도화하는 행보가 '26년 더욱 빨라질 것으로 전망

국적별 글로벌 디스플레이 시장 점유율(금액 기준)

국적	'17	'18	'19	'20	'21	'22	'23	'24	'25.1H
중국	21.0	25.0	30.9	36.7	41.3	42.5	48.1	50.8	54.7
한국	44.4	42.6	40.4	36.8	33.3	36.9	33.2	33.1	30.0
대만	22.9	24.5	21.9	22.5	23.1	18.2	16.7	14.6	14.0
일본	10.8	6.7	5.9	3.5	1.9	2.1	1.7	1.1	0.9
기타	0.9	1.2	1.0	0.5	0.4	0.3	0.3	0.4	0.4

Source: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 OMDIA
 Note: SHARP는 '17년 매출부터 대만 국적으로 포함하였으며, '25년은 상반기까지 집계

한국의 디스플레이 패널 수출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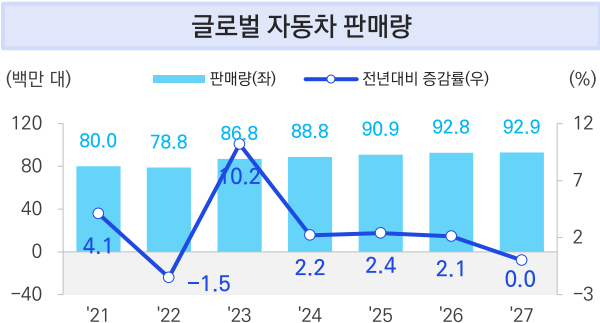
Source: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 한국무역협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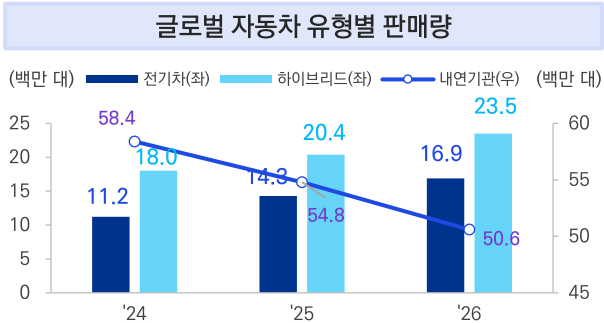
자동차 수요 저성장 국면, 성장 시장·섹터 선별 및 대응이 중요

2025년 글로벌 완성차 판매 현황 및 2026년 전망

- '26년 자동차 판매량 증가율은 '25년 대비 소폭 둔화되는 가운데 친환경 전환은 지속적으로 진행
 - '26년 글로벌 판매량 증가율은 약 2%에 머물 것으로 예상되며 내연기관차 감소 및 친환경 전환은 지속될 전망
 - 미국의 전기차 세액공제 혜택 종료, 중국의 신에너지차 구매 세제혜택 축소 등으로 전기차 성장세도 주춤할 가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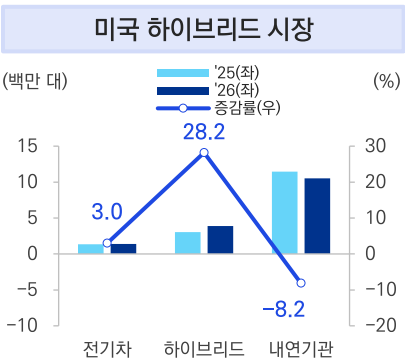
Source: Global Data(2025.11), 삼정KPMG 경제연구원
 Note: '25년은 추정치, '26~'27년은 전망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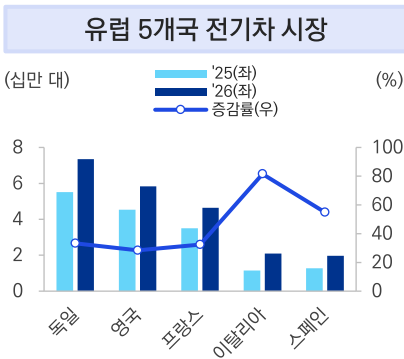
Source: Global Data(2025.11), 삼정KPMG 경제연구원
 Note1: 전기차는 BEV(Battery Electric Vehicle), 하이브리드는 PHEV+MHEV+FHEV(Plug-in Hybrid EV, Mild Hybrid EV, Full Hybrid EV), 내연기관은 IC(Internal Combustion) 판매량 기준
 Note2: '25년은 추정치, '26년은 전망치

2026년 주목해야 할 주요 시장 및 섹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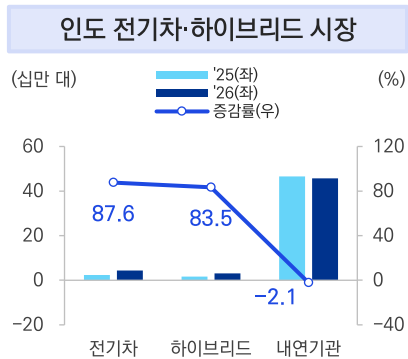
- 미국은 전기차 대신 하이브리드 섹터로, 유럽 5개국과 인도 등 신흥시장은 전기차 섹터가 주목받을 전망
 - 미국 전기차 세액공제 혜택이 '25년 9월 말 종료돼 '26년 전기차 판매량 감소 예상. 반면 하이브리드가 전기차 수요를 흡수하며 '26년 미국 하이브리드 시장은 전년대비 28.2% 성장할 것으로 추정
 - 유럽은 지속적인 환경 규제를 통해 전기차 시장이 전년대비 36.9% 성장할 것으로 추정되며, 주요 국가의 전년대비 성장률도 독일(33.3%), 영국(28.4%), 프랑스(32.5%), 이탈리아(81.5%), 스페인(54.8%) 등으로 예상
 - 인도의 '26년 전기차 및 하이브리드 시장은 전년대비 각각 87.6%, 83.5% 증가할 것으로 기대



Source: Global Data(2025.11), 삼정KPMG 경제연구원
 Note1: 전기차(BEV), 하이브리드(PHEV, MHEV, FHEV), 내연기관은 IC며 증감률은 전년대비
 Note2: '25년은 추정치, '26년은 전망치



Source: Global Data(2025.11), 삼정KPMG 경제연구원
 Note1: 유럽 5개국(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Global Data 선정), 증감률은 전년대비
 Note2: '25년은 추정치, '26년은 전망치



Source: Global Data(2025.11), 삼정KPMG 경제연구원
 Note: '25년은 추정치, '26년은 전망치이며 증감률은 전년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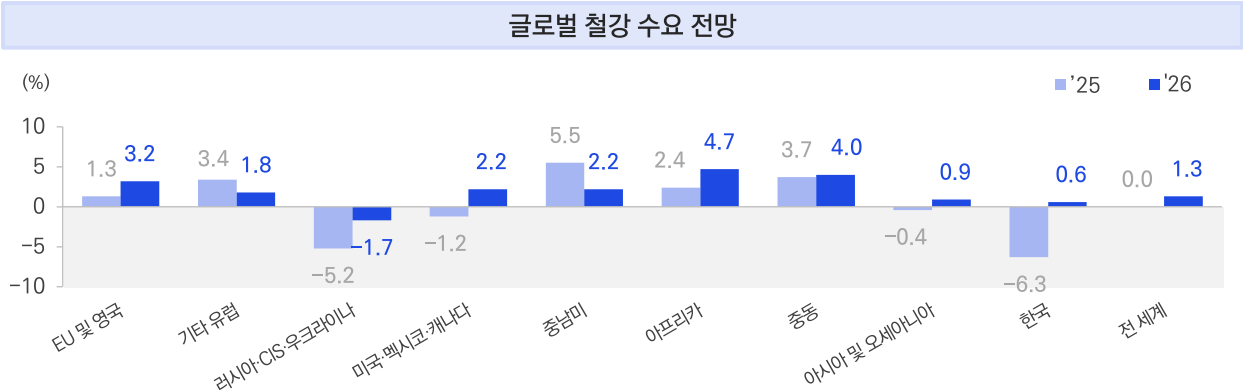


철강

공급과잉 속 지속된 수급부담과 수익성 저하 우려

2026년 글로벌 철강 수요 및 국내 철강산업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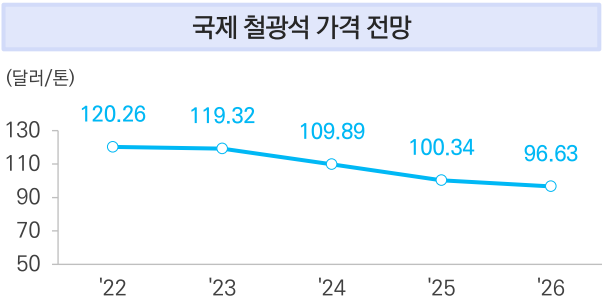
- '26년 글로벌 철강 수요, '25년 대비 1.3% 성장하며 완만한 회복세로 진입 예상
 - 철강 수요의 회복세 진입은 글로벌 경제의 회복력, 주요 국가의 공공 인프라 투자 기조, 자금 조달 조건이 완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것을 포함해, 인도 중심 신흥국의 철강 수요 성장세, 유럽과 미국의 수요 회복세가 고려된 결과
- '26년 국내 철강 수요, '25년 대비 증가할 전망이나 전 세계 성장률의 절반 수준인 0.6%에 그칠 것
 - 일본과 중국의 저가 제품 공급 지속, 미국 수출 제품에 대한 50% 고율 관세 부과, 국내 건설 경기 침체 장기화로 인해 국내 철강 수요 회복세는 더딜 전망. 정부는 K-스틸법을 통해 국내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 지원 방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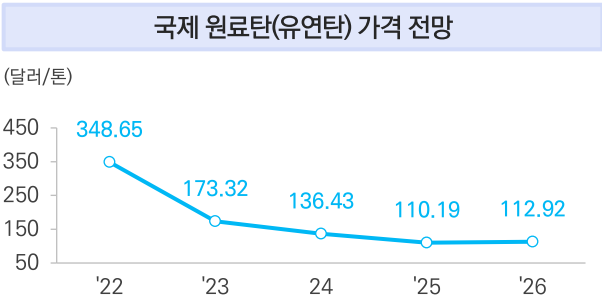
Source: 세계철강협회(2025. 10), 삼성KPMG 경제연구원 재구성
 Note: 전년대비 증감률, '25년은 추정치, '26년은 전망치

2026년 원재료 가격 전망

- 철광석은 '26년 톤당 97달러 수준, 원료탄(유연탄)은 '26년 톤당 113달러 수준 예상
 - 중국의 조강 생산량이 비교적 안정된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철광석 가격은 '25년 가격 대비 소폭 하락할 전망. 다만 향후 중국발 수요가 급감할 경우 철광석 가격도 추가 하락 가능. 한편 원료탄은 아시아(중국, 인도 등)의 수요는 여전한 데 반해 탈탄소화로 자금 조달이 축소되며 공급에 제약이 있어 '26년에는 가격이 소폭 상승할 전망



Source: 한국광해광업공단, 삼성KPMG 경제연구원 재구성
 Note: '25년은 추정치, '26년은 전망치



Source: 한국광해광업공단, 삼성KPMG 경제연구원 재구성
 Note: '25년은 추정치, '26년은 전망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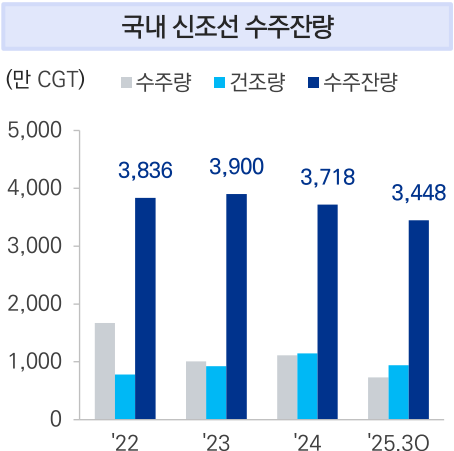
조선

수주잔량 기반 회복 전망, 특수·친환경 선박 수요 기대

2025년 국내 조선산업 현황 및 2026년 전망

- 글로벌 신조선 발주량 및 국내 수주량 감소 추이 지속세
 - 컨테이너선은 세계 신조선 발주량의 약 47%를 차지하는 주요 선종으로 지난 4년간 대형 컨테이너선의 발주량은 67.7% 감소하였으나, 1,000~6,000TEU급 중형 컨테이너선 발주량 증가로 인해 전체 컨테이너선 발주량은 소폭 확대
 - 다만 탱커, 벌크선, LPG선 등 타 선종은 모두 해운시황의 부진 및 선박 공급 증가에 맞물려 발주량 축소 기조 지속
- 국내 조선은 건조한 수주잔량과 고부가가치 친환경 선박 수요에 따른 안정적 운영 전망
 - '25년 3분기 기준 국내 신조선 수주잔량은 3,448만 CGT로 약 3년 치 건조 물량이 확보된 상태. 최근 3년간 소폭 증감에도 수년 치 확보된 수주잔량은 단기적 업황 변화에 완충 효과를 제공하며 이에 '26년도 영업이익은 건조할 것으로 보임
 - 국내외 다수 LNG 프로젝트가 재개되며 고부가가치 친환경 선박(LNG 운반선, LNG·암모니아·메탄올 추진선 등)의 수요 증가가 예상되나, 중국의 친환경 선종 시장 점유 확대가 지속되고 있어 이를 견제할 차별화 전략이 필요
- 군함·특수선 시장 확대 및 MASGA(미국 조선업 부흥 정책)로 인한 미래 수요 기대
 - 캐나다 정부는 3천 톤급 재래식 잠수함 12척 도입과 향후 30년간의 MRO(유지·보수·정비) 계약을 포함하는 차세대 잠수함 사업을 추진 중이며, 전체 사업 규모는 약 60조 원으로 추산. '25년 11월 말 기준, HD현대중공업·한화오션이 독일 티센크루프마린시스템즈(TKMS)와 사업 수주 최종 후보로 경쟁 중
 - '25년 초 페루·필리핀 등에 인도된 해군 함정을 통해 국내 함정 건조 경쟁력이 국제적으로 부각되며, 필리핀 초계함 2차 사업, 사우디 호위함, 인도 상륙함 사업 등에서 국내 기업 영향력이 확대됨. 특히 동남아 지역 생산 거점 확보로 군함에 대한 글로벌 수주 확대 가능성이 주목됨
 - 한국형 핵추진잠수함(SSN) 건조 계획에 따라 최소 10조 원 이상 예산이 투입될 전망이며, 향후 미군 전략 자산 사업 수주 가능성도 커질 전망. 특히 '25년 11월 14일 발표된 한미 합동 팩트시트에 따라 잠수함 건조 전 과정이 국내 조선소에서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져 관련 기업·인력 수요 증가가 예상됨

글로벌 신조선 발주량과 한국 수주량 현황 및 전망			
구분	'24년	'25년	'26년
글로벌 발주량 (백만 CGT)	65.8 (▲33.8%)	41.0 (▼37.7%)	35.0 (▼14.6%)
한국 수주량 (백만 CGT)	11.0 (▲9.1%)	9.5 (▼13.6%)	9.0 (▼5.3%)
글로벌 발주액 (억 달러)	2,038 (▲55.2%)	1,320 (▼35.2%)	1,120 (▼15.2%)
한국 수주액 (억 달러)	362 (▲22.4%)	305 (▼15.8%)	285 (▼6.6%)



Source: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삼성KPMG 경제연구원
Note: 괄호 안 백분율은 전년대비 증감률이며 '25년은 추정치, '26년은 전망치

Source: 산업통상자원부, 삼성KPMG 경제연구원



해운

운임 부진 지속 속 탈탄소 규제 강화·항로 리스크 확대

2025년 국내 해운산업 동향 및 2026년 전망

- 글로벌 경기 둔화와 공급 과잉으로 인해 운임 하락 압력 가능성
 - 컨테이너선 운임은 관세 분쟁으로 인해 소폭 상승하였고 탱커선 운임도 유조선을 중심으로 양호한 수준을 보였으나, '26년 선종별 선박 과잉 공급과 글로벌 경기 부진이 예측되며 시황 개선은 어려울 전망
- 탈탄소화에 대한 과세·규제 리스크 확대
 - 국제해사기구(IMO)가 해운 탄소세 도입을 1년 유예하기로 발표했으나, 중장기적으로 '2050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중간 단계 규제를 강화할 가능성이 잔존. 국내 선사들의 친환경 선박 비율은 5.9%¹⁾ 수준인 가운데, 탄소세 유예로 인해 단기적으로 연간 1조~4조 원의 과세를 피했으나 리스크는 점차 확대될 전망
- 동북아 정세 변화와 교역·물동 패턴의 변화 가능성 부각
 - 대만해협 긴장과 중·일, 미·중 갈등으로 남·동중국해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며, 아시아 역내 교역 구조 및 물동량 변동성 증가가 나타날 가능성 포착. 이로 인해 동북아(한·중·일)를 중심으로 한 지역 물류 흐름과 환적 패턴에도 조정 압력이 발생할 수 있음
 - 이 같은 물동 변화는 국내 해운사의 운항·항만 처리·화물 확보 전략에 간접적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 북극항로 등 대체 항로 논의가 점진적으로 확대될 수 있음

2026년 해운산업 전망	
<div>컨테이너선</div> <div> </div>	<div>미국 무역분쟁 여파로 수요 위축이 예상되나 신규 선박 공급의 감소로 운임 하락세는 제한적일 전망</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촉발한 세계 무역분쟁으로 해운 수요 증가율이 지속 위축되어 전반적인 운임 하락이 예상됨. 특히 최근 '1년간 상호 관세부와 유예'를 발표한 미·중 간 무역분쟁의 낮은 예측 가능성은 글로벌 해운 시장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잠재 위험 변수 - '26년 선박 증가율은 약 4.5%로 최근 3년 내 신규 선박 공급이 가장 적을 것으로 예측되어 운임 하락 추이에 약간의 제동 가능성 시사
<div>LNG선</div> <div> </div>	<div>LNG 물동량 10% 증가 예상되나 신조선 대거 인도로 시황 개선은 제한적</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6년 예정된 대규모 LNG(액화천연가스) 생산·수출 사업과 '25년 생산된 LNG의 수출 지연 물량을 고려할 때 전년대비 약 10%의 물동량 증가가 예상됨 - 다만 현 선박의 12% 이상 규모로 신조 선박이 인도될 전망에 따라 LNG 물동량 증가로 인한 시황 개선이 상쇄되어 개선폭은 다소 제한적일 가능성
<div>벌크선</div> <div> </div>	<div>글로벌 경기 둔화·선박 과잉 우려로 수요 부진 지속 예상되나 친환경 규제가 선박 조질 핵심 변수</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수의 글로벌 분쟁 및 세계 경제 저성장 등에 따른 수요 부진과 탄소 중립을 위한 석탄 수요 감소 등이 지속되며 근본적인 수요 확대의 어려움이 예상됨 - '23~'24년 대량 발주된 선박이 '26년경 인도 예정인 반면 노후 선박의 대량 폐선 동인은 뚜렷하지 않아 선박 공급 조절이 어려울 전망 - 다만 친환경 선박 전환에 대한 강제 규제 시행 여부는 노후 선박 폐선에 따른 선박 공급 조절이 가능하게 될 주요 요인으로 평가됨
<div>탱커</div> <div> </div>	<div>교역 노선 장거리화로 업황 안정 추이를 보이나 신규 공급 확대로 운임 하락 압력</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 지정학적 요인(러·우 전쟁 등)으로 인한 교역 노선 장거리화 및 규제 강화는 안정적 업황이 유지되는 데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 - 다만 중동 분쟁의 안정화 여부에 따라 수에즈 항로의 정상 운용이 결정되면 이는 탱커 운임의 하락 요인이 될 수 있음 - 또한 '24년 크게 증가한 탱커 발주가 '26년부터 신규 공급될 전망. 유조선은 전체 선박량의 4~5%, 제품선은 6~7% 수준으로 증가 예상

Source: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한국해운협회, 언론보도 종합, 삼정KPMG 경제연구원

주1) '24년 한국해운협회 집계 기준



정유·화학

지역별 증설 편중, 국내 석유화학산업 재편 주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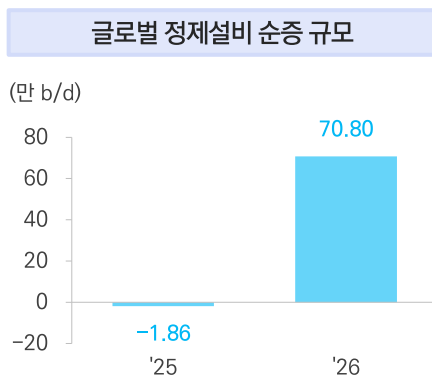
<정유> 2026년 글로벌 정제설비 변화 전망

■ 아시아·중동 중심의 대규모 프로젝트로 증설 규모가 확대되나, 일부 지역별 불균형 심화 예상

- '25년 글로벌 정제설비 순증 규모는 페트로차이나(PetroChina)의 중국 다롄(Dalian) 설비, 페트로이네오스(Petroineos)의 영국 그레인지머스(Grangemouth) 설비 등의 잇따른 폐쇄로 '21년 이후 최초로 감소
- 반면 '26년 글로벌 정제설비 순증 규모는 약 70.8만 b/d 증가 전망. 이는 인도석유회사(Indian Oil Corporation)의 구자라트(Gujarat)·파니파트(Panipat)·바라우니(Barauni) 설비, 사우디 아람코(Saudi Aramco)가 지분 투자한 중국 판진(Panjin) 통합 정유·화학 단지 프로젝트, 멕시코 페멕스(Petróleos Mexicanos)의 도스 보카스(Dos Bocas), 나이지리아 단고테(Dangote), 중국 옴롱(Yulong) 등 신규 메가 정제설비 가동률 증가세에 기인
- '26년 글로벌 정제설비 순증 현상은 지역별로 차이 존재. 아시아·중동과 달리, 미국·유럽은 환경 규제와 수요 구조 변화로 인해 일부 정제설비 폐쇄가 예상됨에 따라 연료 공급 부족 현상이 심화될 가능성

- 원유 재고 지속 증가로 국제 원유가격 하락 전망

- EIA(미국에너지정보청)은 원유 가격(Brent Crude Oil)을 '25년 말까지 배럴당 69달러 수준, '26년 평균 가격은 배럴당 55달러로 예상. 또한 '26년 글로벌 원유 초과 공급은 지속되나 공급 증가 규모는 둔화될 것으로 전망



국가	지역	기업	규모(만 b/d)
중국	판진(Panjin)	HAPCO*	약 30.0 증설
인도	파니파트(Panipat)	인도석유공사	약 20.0 증설
미국	로스앤젤레스(Los Angeles)	필립스 66(Phillips 66)	약 13.9 폐쇄
	캘리포니아(California)	발레로(Valero)	약 14.5~17.0 폐쇄

Source: 언론보도 종합, 삼정KPMG 경제연구원

Note*: 사우디 아람코, 중국 노린코 그룹, 판진 신청 산업 그룹 간의 합작 법인인 화진 아람코 석유화학(HAPCO) 개발 프로젝트

Source: 언론보도 종합, 삼정KPMG 경제연구원

<화학> 2026년 국내 석유화학 구조조정·사업 전망

■ 정부 주도의 대규모 감축·구조조정 압력 본격화 예상

- 중국과 중동의 대규모 설비 증설로 인한 글로벌 공급 과잉 장기화, 수출 감소·실적 부진 등으로 국내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약화가 지속되자, 정부와 석유화학업계는 에틸렌 생산량을 최대 370만 톤 규모 감축하기로 협약
- '25년 말까지 자율 계획과 더불어 '26년부터 구조조정특별법(금융·세제·R&D 지원 등)을 통해 정부 및 민간 주도로 진행 예정. 롯데케미칼과 HD현대케미칼은 이러한 감축의 일환으로 대산 석유화학 설비 통합합 추진 발표 ('25.11.26)
- 대규모 설비 보유 기업은 공장 통합 또는 자산이전, 고부가가치·친환경 제품 등으로 포트폴리오 전환이 가능하나, 이 외 소규모·단독 크래커(NCC) 보유 업체는 폐쇄 또는 매각이 논의될 수 있는 환경에 직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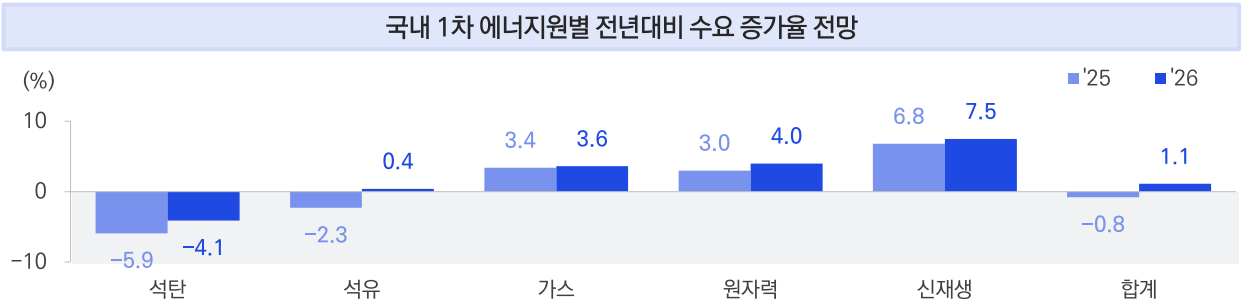


에너지·유틸리티

에너지 수요 전년대비 증가, 회복세는 완만

2026년 국내 1차 에너지원별 수요 전망

- 국내 총 에너지 수요 전년대비 1.1% 증가, 석탄 제외한 주요 1차 에너지원 수요 증가
 - '25년 총 에너지 수요는 철강, 석유화학 등 업황 부진으로 산업용 에너지 수요가 감소하며 전년대비 0.8% 감소할 것으로 추정되나, '26년에는 전년대비 1.1% 증가한 약 310.6백만 toe를 기록하며 완만한 회복세 전망
 - 석탄 수요는 '25년에 이어 '26년에도 발전·산업용을 중심으로 하락세가 지속되고 석유는 0.4%로 반등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가스, 원자력, 신재생도 각각 증가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
 - 전력 수요 증가로 가스 발전 확대와 함께 에너지믹스 또는 재생·원전 확대 정책으로 신재생 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 화석 연료 의존도는 지속적으로 감소할 가능성 존재



Source: 에너지경제연구원(2025.8), 삼성KPMG 경제연구원
Note: '25년은 추정치, '26년은 전망치

에너지원별 주요 이슈로 본 수요 동향 및 전망

석탄 발전·산업·건물용 전 부문에서 감소하며, 정책·구조적 요인으로 지속적 감소세를 이어갈 전망

- 송전선로 한계, 친환경 연료전환, 정부의 석탄발전 제한 등으로 석탄 수요는 감소할 것으로 보이며 기저효과 및 완만한 경기 회복으로 일시적 반등은 가능하나 글로벌 철강 공급 과잉, 석유화학 등 석탄 소비 비중이 높은 산업의 구조적 부진 요인으로 증가는 한계

석유 수송 부문 증가에도 불구하고, 석유화학산업 부진과 글로벌 경쟁 심화로 산업용 수요가 감소하여 증가폭은 다소 제한적

- '25년 석유화학 업황 부진으로 산업용 석유 수요는 전년대비 감소, '26년에는 전년대비 0.4% 증가하며 회복세 전환이 예상되나 중국의 석유화학 제품 자급률 확대, 중동 산유국의 직접 진출 확대 등 글로벌 경쟁 심화로 인해 증가폭은 다소 제한적

가스 전력 수요와 함께 산업용 천연가스를 중심으로 발전용·최종 소비 부문의 가스 수요 증가를 주도할 것으로 예상

- 전력 수요 증가로 인해 발전용 가스 수요 증가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며, 최종 소비 부문의 경우 사용자가 직도입하는 발전용 천연가스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가스 수요 증가를 견인할 것으로 전망

원자력 신규 원전 2기(새울 3·4호기) 진입 영향으로 원자력 발전량 증가할 것으로 기대

- 정부의 원전 비중 확대 계획과 더불어 현재 울산 울주군에 건설 중인 원자력 발전소 새울 3·4호기(舊 신고리 5·6호기)는 '26년 가동 예정. 신규 설비에 따라 원전 설비용량이 약 2.8GW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원자력 수요 역시 전년대비 4.0% 증가할 것으로 전망

신재생 신재생에너지 수요는 전년대비 7.5% 증가하며, 가장 큰 폭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

- 신재생에너지 공급 확대 및 인프라 고도화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 태양광 발전 수익성 하락에 따른 발전 투자 위축 또는 일부 정책적 이슈로 설비 용량 증가가 둔화될 수는 있음에도 에너지원 중 가장 큰 폭으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

Source: 에너지경제연구원(2025.8), 언론보도 종합, 삼성KPMG 경제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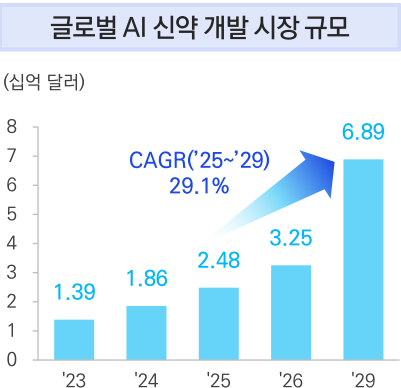


제약·바이오

K-AI 신약 개발부터 CDMO까지 경쟁력 확대

2026년 AI 신약 개발 시장 전망

- 글로벌 빅파마, 신약 개발 효율화를 위한 자체 AI 플랫폼 구축 확대
 - 글로벌 AI 신약 개발 시장은 '25년 이후 연평균 29.1%의 성장률을 보이며 '26년 32.5억 달러 규모로 확대 전망
 - 글로벌 빅파마는 AI·클라우드, 데이터 분석 플랫폼 등을 제공하는 기술 인프라 및 플랫폼 기업과의 협업을 넘어 자체 AI 플랫폼을 구축하며 관련 기술 투자 및 거래가 활발할 것으로 예상
- 후보물질 발굴부터 임상까지 전(全) 주기적 K-AI 신약 개발 생태계 조성
 -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도 AI 기술을 적극 도입하고 있으나, 신약 개발 전 주기적 단계 내 AI 기술 고도화에 따른 고비용·데이터 접근성 제한, 전문 인력 및 규제 미흡 등으로 인해 글로벌 기업과의 기술 격차가 심화될 우려 존재
 - AI 신약 개발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K-AI 신약 개발 지원이 본격화되고 있으며, 전략적 연구·개발(R&D) 생태계를 조성하여 글로벌 신약 시장에서 경쟁력 확보하고자 정부 과제와 민·관 협력을 통한 기술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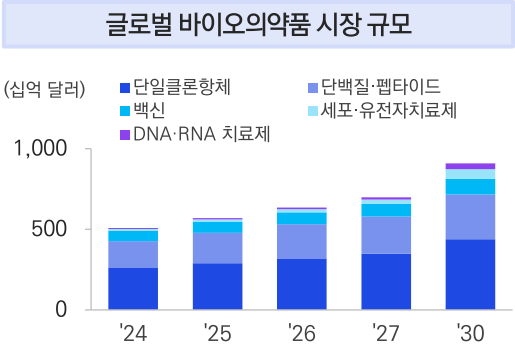
Source: 언론보도 종합, 삼성KPMG 경제연구원
Note1: 약물 발견(Drug Discovery) 시장 기준
Note2: '25년은 추정치, '26~'29년은 전망치

국내 AI 신약 개발 동향	
기업명	주요 내용
한미약품*	국내 AI 전 주기 신약 개발 생태계 조성을 위한 국책사업의 핵심 연구기관으로 선정되어 AI 신약 개발 플랫폼 구축 계획 발표('25.11)
대웅제약*	'역이행 연구 설계 인공지능 소프트웨어(AI SW)' 개발 과제 참여하여 항암·대사질환 비임상 데이터 제공 및 AI 소프트웨어 실증 추진
삼성바이오에피스	'AI 모델을 활용한 항체 바이오의약품 개발 및 실증' 국책과제 공동 연구기관 참여 등 AI 기반 바이오 신약 개발 추진
셀트리온	포트레이(Portrai)** 기업과 신약 탐색 공동연구 개발 계약 체결('25.10), AI 신약 개발 전담조직 신설 등 AI 신약 개발 역량 강화

Source: 언론보도 종합, 삼성KPMG 경제연구원
Note*: 보건복지부 주관 '2025년 K-AI 신약 개발 전임상·임상 모델개발 사업' 공동 연구기관 지정
Note**: 공간전사체(Spatial Transcriptomics) 기반의 고해상도 암 환자 데이터베이스와 분석 플랫폼 보유 기업

2026년 바이오의약품 시장 전망

- 바이오의약품 시장 성장과 함께 CDMO 수요 증가 및 경쟁 심화
 - 비만·대사질환 및 항암제 중심의 바이오의약품 시장 성장으로 단일클론항체와 단백질·펩타이드(GLP-1 등) 분야 강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세포·유전자치료제와 DNA·RNA 치료제 분야의 임상·상업 파이프라인 확대가 성장세를 견인할 것으로 예상
 - 이는 국내외 CDMO(위탁개발생산) 수요 확대를 견인. CDMO 생산능력 확장 및 설비 고도화 투자 증가하며, 전통 제약사까지 CDMO 시장에 진출함으로써 시장 경쟁 심화 예상



Source: 국가생명공학정책연구센터, 삼성KPMG 경제연구원
Note1: 단일클론항체(Monoclonal Antibodies), 단백질·펩타이드(Protein·Peptide Therapies), 백신(Vaccines), 세포·유전자치료제(Cell·Gene Therapies)
Note2: '25년은 추정치, '26~'30년은 전망치



건설

공공 회복 속 민간 부진·비용 압박 지속 전망

2025년 국내 건설산업 동향 및 2026년 전망

- 공공 부문 발주 확대에 따른 구조적 수요 회복
 - 정부의 '26년 SOC 예산이 전년대비 7.9% 증가하고 공공 주택 공급 확대 정책(9.7 대책 등)이 연속적으로 시행되며, '26년 건설투자는 공공 부문을 중심으로 견조한 회복세가 나타날 전망
 - 실제로 공공 발주액은 '25년 66.6조 원에서 '26년 72.3조 원으로 증가하며 전체 건설수주('26년 231.2조 원) 확대의 핵심 동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됨
 - 또한 지방 중심의 인프라 보강 및 산업단지 투자 확대 등 SOC 수요가 지속되면서 공공 부문 발주가 건설사의 수주 안정판 역할을 강화할 전망
- 민간 주택 시장 침체에 따른 수주 제약 지속
 - 주택 수요 억제 기조(6.27·10.15 대책)와 미분양 증가세가 이어지며 민간 주택경기는 '26년까지도 뚜렷한 반등 모멘텀 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우려됨
 - 민간 발주액 증가폭은 제한적이며 '26년 민간 수주도 158.9조 원 수준에 머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공사 완료 후 미분양 부담이 누적되면서 신규 프로젝트의 착공 지연 및 분양 리스크가 가중되는 모습이며, 이러한 구조적 제약은 민간 중심 건설사들의 수주 회복 속도를 지속적으로 제한할 것으로 전망됨
- 공사비 상승 및 규제 강화로 인한 비용 압박 심화
 - 건설공사비지수가 고점 수준에서 추가 상승하며 원가 구조에 부담이 가중되는 가운데, 안전·품질 중심의 규제 강화와 노동 관련 제도 개편이 비용 상승 요인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양상
 - 인건비·자재비의 구조적 상승과 ESG 요구 강화까지 더해지며, 향후 건설사의 수익성 개선 속도는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됨

국내 건설수주액 현황 및 전망					
(조 원)					
		'24년	'25년	'26년	증감률 (YoY)
발주 부문별	공공	67.0	66.6	72.3	8.6%
	민간	151.1	155.5	158.9	2.2%
공종별	토목	67.7	45.6	48.2	5.7%
	건축	150.4	176.6	182.9	3.6%
	주거	85.8	105.4	110.5	4.8%
	비주거	64.6	71.2	72.5	1.8%
전체		218.1	222.2	231.2	4.1%



Source: 대한건설협회, 한국건설산업연구원
Note: '25년과 '26년은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전망치

Source: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데이터처
Note: '25년 9월 수치는 잠정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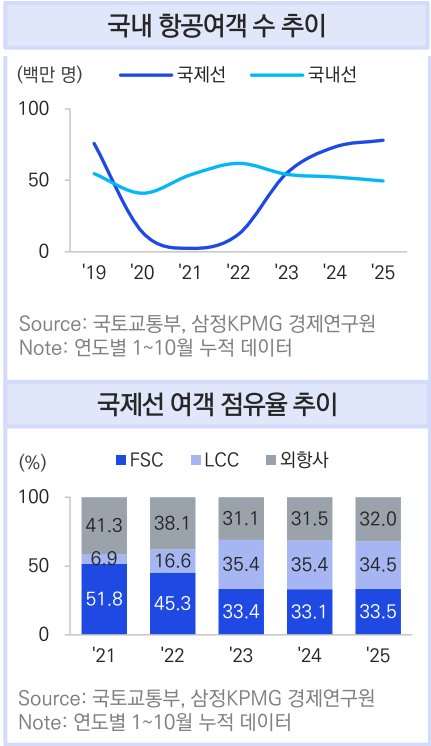


항공

항공사 재편 지속, 고부가 화물 비중 확대 전망

2025년 항공여객산업 현황 및 2026년 전망

- '25년 국내 총 항공여객 수는 전년대비 1.5% 증가했으며, '26년에는 국제선 수요 정상화와 중·장거리 회복 흐름 속에서 최근 중·일 갈등에 따른 중국 관광객 일부의 국내 전환 효과까지 반영돼 안정적 성장 기대. 항공 운임은 여객 증가와 유가·SAF(지속가능 항공유) 부담이 맞물리며 안정적 수준 유지할 전망으로, 수익성 개선 폭은 제한될 가능성 있음
- 통합항공사 출범 효과로 FSC 중심의 중·장거리 네트워크 재편 진행
 - 대한항공·아시아나 통합에 따라 중복 노선 정리 및 FSC(Full-Service Carrier) 중심의 중·장거리 노선 경쟁력이 한층 강화될 전망
 - 운수권·슬롯 조정으로 FSC의 글로벌 연결성이 확대되는 동시에, 일부 LCC(Low-Cost Carrier)에는 선택적 중거리 진입 기획의 가능성 존재
- LCC 통합 재편 가능성이 확대되면서 공급 구조 재정비 압력 지속
 - 비용 부담 확대와 경쟁 심화로 LCC업계의 구조조정 필요성이 높아지며, 통합 및 협력 논의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상황
 - 기단·기종 통합을 통한 운항 효율성 개선과 재무 건전성 확보를 위해, LCC 재편 시 단거리 노선 과당경쟁 완화 가능성도 커질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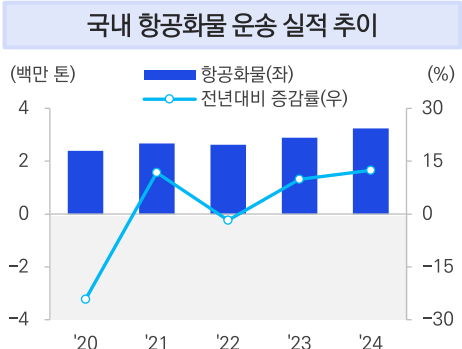


2025년 항공화물산업 현황 및 2026년 전망

- '25년 국내 항공화물 시장은 반도체·바이오 중심 완만한 회복. '26년에는 고부가 품목 중심 구조 전환 본격화 전망
 - '25년에는 국내 항공화물은 IT·반도체 및 의약품·정온화물 중심의 수요 회복이 지속되며, 재고 조정과 무역 규제 영향으로 전년대비 증가폭은 제한
 - '26년에는 AI 서버·GPU(그래픽 처리 장치) 확대, HBM(고대역폭 메모리) 등 고성능 반도체 수요 증가가 반도체 패키징·부품 물동량을 견인하며 고부가 화물 중심의 구조 변화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

국내 항공화물 품목별 수출 실적						
제품	수출 금액(백만 달러)			전년대비 증감률(%)		
	'23년	'24년	'25년	'23년	'24년	'25년
전체	130,550	172,161	193,163	-27.0	31.9	12.2
메모리반도체	34,625	63,101	79,135	-43.2	82.2	25.4
프로세서와 컨트롤러	22,706	25,941	27,162	-20.0	14.2	4.7
기타집적회로반도체	7,908	8,485	7,902	-6.2	7.3	-6.9
전산기록매체	3,974	7,588	7,716	-64.6	90.9	1.7
의약품	4,572	5,932	6,971	-36.2	29.7	17.5

Source: 한국무역협회, 삼정KPMG 경제연구원
 Note: 연도별 1~9월 누적 데이터, MTI 6단위





게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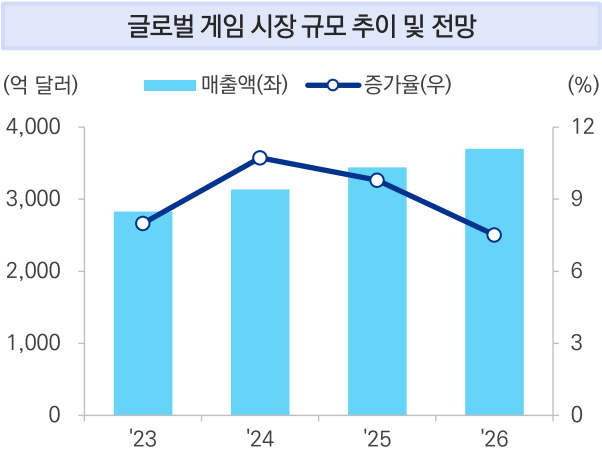
글로벌 성장세 속 국내 게임산업의 구조 전환 가속화

2026년 국내외 게임 시장 전망

- 글로벌 게임산업 성장세 속 국내 게임산업의 구조적 재편이 본격화될 전망
 - 글로벌 게임 시장은 고성능 컴퓨팅·네트워크 인프라 개선, 게임 엔진 발전 및 AI 기술 융합, IP(지식재산권) 기반 트랜스미디어 신작 확대, 동남아·중동 지역의 빠른 수요 증가 등을 바탕으로 '25년 약 3,441억 달러에서 '26년 전년대비 7.5% 성장한 약 3,699억 달러로 성장세를 유지할 전망
 - 반면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소셜미디어 등 대체 엔터테인먼트 소비 증가와 중국 캐주얼 게임의 약진 등으로 국내 게임 매출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모바일게임 성장세 둔화가 지속되며, 국내 게임산업의 체질 개선과 구조 재편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

2026년 국내 게임산업 주요 이슈

- IP·시장 다변화와 기술 혁신을 중심으로 한 국내 게임산업 구조의 본격적 고도화
 - 모바일 중심에서 벗어나 콘솔·PC·클라우드 등 멀티 플랫폼으로 확장하며 해외 시장 공략 속도를 높일 전망
 - 인기 IP 확보를 위한 콘텐츠 기업 간 M&A·파트너십 확대 등을 통해 다중 IP 활용 전략이 더욱 적극적으로 전개될 것으로 예상
 - 생성형 AI 및 자동화 기술이 게임 개발·운영 전 과정에 본격적으로 도입되며 제작 효율·콘텐츠 경쟁력·업데이트 속도 등에서의 격차 발생 가능성 확대
- 이용자 경험 변화와 정책 환경 개선에 따른 성장 기회 확대
 - 짧고 가벼운 플레이를 즐기는 경향과 커뮤니티·참여형 활동 증가가 맞물리며, 이용자 소통 기반의 라이브 스트리밍 서비스, UGC(User Generated Content) 기반 플레이, 커뮤니티 서비스 등이 중요한 경쟁 요소로 부상할 전망
 - 국내 게임 규제 완화 흐름과 중국 시장의 한한령 완화 기조가 맞물려 신작 출시 전략의 다변화와 해외 진출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



Source: Statista(2025.10), 삼정KPMG 경제연구원
Note: 게이밍 하드웨어 부문은 제외, '25년은 추정치, '26년은 전망치

2026년 국내 게임산업 주요 이슈	
시장 변화	- 플랫폼 다변화로 글로벌 확장 가속 - 인기 IP 확보 위한 콘텐츠 기업 간 M&A 및 파트너십 확대
기술 변화	- 게임 개발·운영 전반에 AI 활용 범위 확대 및 기술 고도화
소비자 변화	- 짧고 가벼운 플레이 경험 선호 증가 - 참여·공유 중심 커뮤니티 활동 강화로 소통 중심 서비스 중요성 확대
규제 변화	- 게임 규제 완화 기조로 산업 성장 지원 - 한한령 완화 가능성에 따른 중국 시장 내 기회 확대

Source: 삼정KPMG 경제연구원



미디어·엔터

성장 국면에서 AI·팬덤 기반의 질적 전환 부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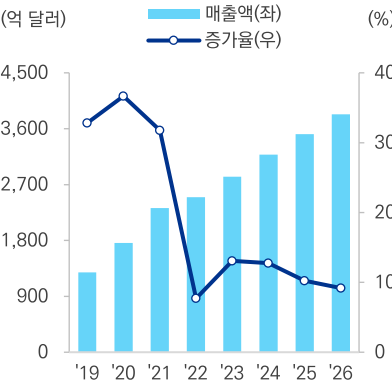
2026년 글로벌 미디어·엔터테인먼트산업 전망

- 글로벌 OTT 성장세 둔화 속에서 수익구조 재편이 핵심 전략으로 부상할 전망
 - '26년 글로벌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매출은 전년대비 9.2% 증가한 3,834억 달러가 예상되나, 경쟁 심화 및 시장 포화로 구독자 증가가 정체되며 성장 속도는 지속 둔화될 전망. 광고·커머스·팬권 협력 등 수익 다변화 중심의 질적 성장 전략이 부상
- '26년 국내 엔터테인먼트 시장은 대형 IP의 활동 재개와 중국 한한령 완화로 글로벌 K-POP 성장세 유지 전망
 - '26년 BTS·블랙핑크 등 대형 IP의 그룹 활동 재개, 중국 내 한한령 완화 및 공연 재개 가능성이 맞물리며 K-POP 시장의 성장 모멘텀이 지속 확대될 것으로 전망

2026년 국내 미디어·엔터테인먼트산업 주요 이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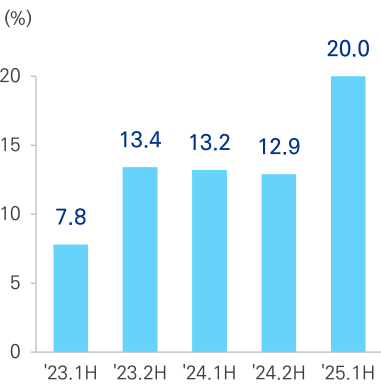
- 콘텐츠산업 전반에서의 생성형 AI 도입을 통한 제작, 운영 전 과정 자동화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
 - 콘텐츠산업의 생성형 AI 활용률은 '23년 상반기 7.8%에서 '25년 상반기 20.0%로 빠르게 확대. '26년에는 대본·스토리보드·편집·VFX(시각특수효과) 등 제작 전 단계에서 AI 자동 생성·보조 기능이 상용화될 가능성
 - 추천·마케팅·운영 영역 전반에서도 AI 자동화가 확산되며 콘텐츠 라이프사이클 효율이 크게 높아질 가능성
- 라이트팬 유입 확대를 통한 팬덤 저변 확장과 동시에 슈퍼팬 전환을 통한 고부가 수익 창출의 중요성 강조
 - 엔터테인먼트산업 내 IP에 대한 높은 충성도와 참여도를 보유한 핵심 팬층을 의미하는 슈퍼팬(Super Fans)은 일반 이용자 대비 온·오프라인 공연 참여율과 MD 구매 비중이 월등히 높아, 엔터테인먼트 기업 성장의 핵심 기여층으로 자리매김
 - 일상적 관심 수준에서 가볍게 IP를 즐기는 글로벌 라이트팬 유입을 확대해 팬덤 저변을 넓히는 전략과 함께 정교한 참여형 경험(공연·MD·커뮤니티) 강화를 통한 성공적인 슈퍼팬 전환이 경쟁력 제고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

글로벌 OTT 시장 매출액 추이 및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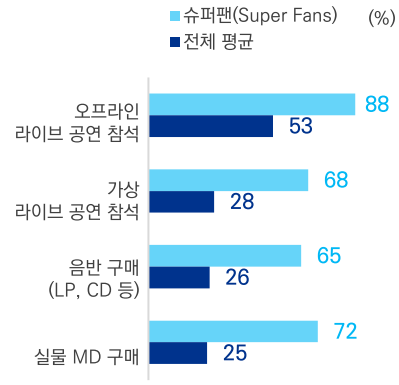
Source: Statista(2025.10), 삼성KPMG 경제연구원
 Note: '25년은 추정치, '26년은 전망치

국내 콘텐츠산업 내 생성형 AI 활용률



Source: 한국콘텐츠진흥원, 삼성KPMG 경제연구원
 Note: '25년 기준 2,513개 국내 콘텐츠 분야 사업체 대상 설문조사 결과

슈퍼팬과 전체 청취자의 음악 경험 비교



Source: Variety VIP+(2025.8), Luminate, 삼성KPMG 경제연구원
 Note: '22~'25년 미국 내 슈퍼팬(Super Fans) 5,244명, 전체 청취자 27,291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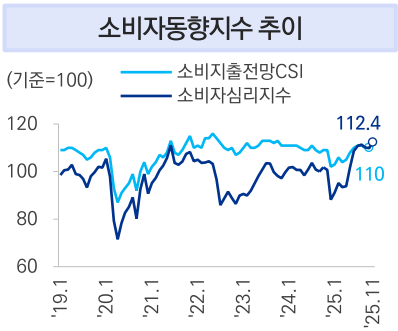


유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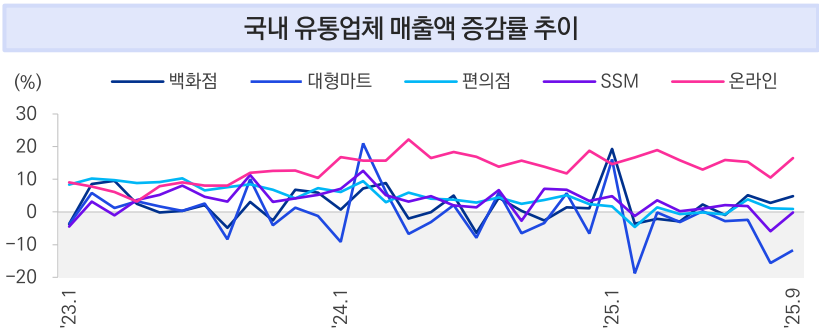
소비 환경 개선되나 업태별 기대와 우려 공존

2025년 주요 유통업태별 현황 및 2026년 전망

- 물가 안정, 인바운드 확대 등 우호적 거시 환경이 조성됨에 따라 '26년 내수 소비는 전년대비 소폭 증가하겠으나, 회복 모멘텀은 제한적일 전망
 - 정부의 대규모 추경 집행 및 민생회복 소비쿠폰 등 정책적 지원의 영향으로 '25년 하반기 들어 소비심리지수 및 소비지출전망CSI의 상승세가 관찰. 다만 민생회복 소비쿠폰 대상 업종이 아닌 경우 소비심리 회복에 따른 효과가 제한적. '26년에도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 기조에 따라 소비심리 개선세가 유지되며 민간소비 회복의 완만한 기저를 형성할 것으로 예측



Source: 한국은행, 삼성KPMG 경제연구원
Note: '25년 11월 수치는 잠정치



Source: 산업통상자원부, 삼성KPMG 경제연구원
Note: 승용차를 제외한 순수 소매판매액 기준

국내 주요 유통업태별 2026년 전망

- 백화점

백화점은 포맷 혁신 가속화하며 성장 정체 극복 시도 ... 인바운드 증가에 따른 수혜 가능성

 - 백화점 입지 및 점포 규모에 따른 매출 양극화가 뚜렷해지며 점포별 리뉴얼 단행. 백화점업계는 프리미엄 델리 등 식품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팝업스토어 등을 통한 차별화된 쇼핑 경험으로 실적 개선 도모. 아울러 최근 단순 제품 구매보다 다채로운 경험을 원하는 외국인 관광객들의 백화점 방문이 증가함에 따라 인바운드 모멘텀에 따른 실적 개선 기대감
- 대형마트

대형마트는 창고형 할인점을 중심으로 반등 기회 모색

 - 경기 불황 속 생활비 절약을 위해 대용량 상품을 저렴하게 구매한 뒤 소분해두는 전략적 장보기가 확산함에 따라 창고형 할인점의 매력도가 부각. 한편 SSM 및 이커머스 등과의 경쟁 심화로 대형마트업체 실적 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식료품 특화 매장으로 전환을 꾀하며 성장 여력 모색 가능
- 편의점

지속되는 실적 부진에 체질 개선으로 점포 효율성 높여 부진 타개

 - 편의점업계는 그동안 종합 근린형 점포로 입지를 확보하며 견조한 성장세를 지속해왔으나 최근 편의점 점포 포화로 신규 출점이 둔화되고 1인당 구매액이 다소 감소하는 등의 요인으로 매출 증가율이 둔화함에 따라 '26년에는 정체가 지속되거나 소폭 개선에 그칠 가능성
 - 점포 효율화, 비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등 고부가가치 상품을 강화하는 한편 생활 밀착 서비스를 확장하며 기존 점포 경쟁력 제고에 주력 필요
- SSM

근거리 장보기 트렌드 지속되며 SSM(기업형 슈퍼마켓) 성장세 유지

 - 대형마트보다 접근성 측면에서 유리하고, 편의점 대비 다양한 품목을 취급하는 등의 이점을 내세워 SSM은 소폭의 성장세 유지 전망. SSM업계는 소용량 포장 신선식품 강화, 델리 확대, 쿠팡머스 도입 등 대형마트와 편의점, 온라인 사이 틈새시장을 공략한 상품 구성 및 비즈니스 전략으로 경쟁력 강화
- 이커머스

이커머스, 높은 경쟁 강도 속 저성장 기조 지속 전망

 - '26년에도 높은 경쟁 강도에 직면한 이커머스업계는 전반적인 성장 둔화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 이에 기술적 혁신과 초개인화 기반의 소비자 경험 차별화 전략 등이 이커머스 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주요 요소가 될 것으로 전망

Source: 삼성KPMG 경제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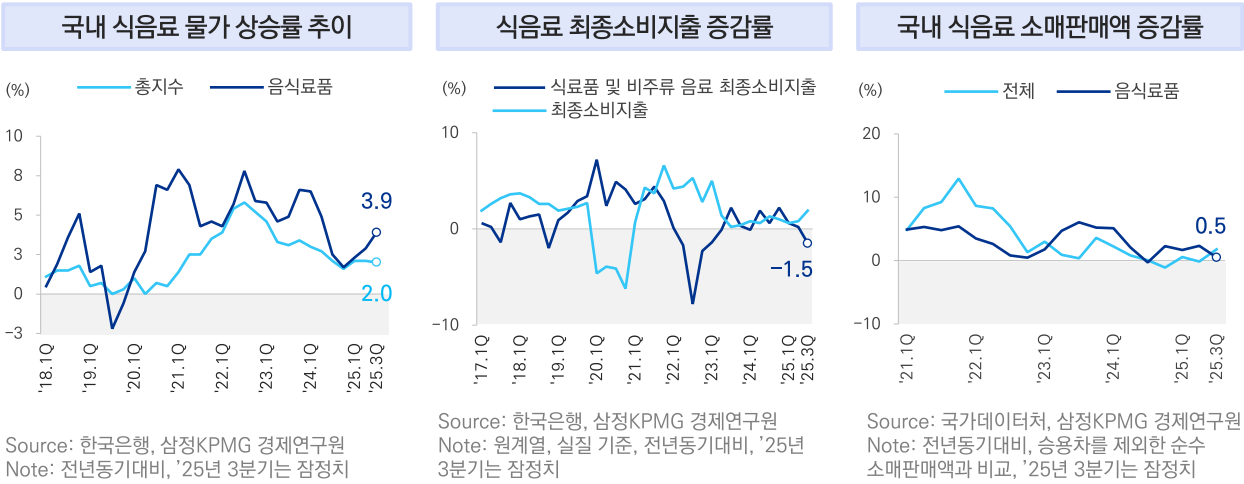


식품

내수 소비 제한적이거나, K-푸드 글로벌 침투 가속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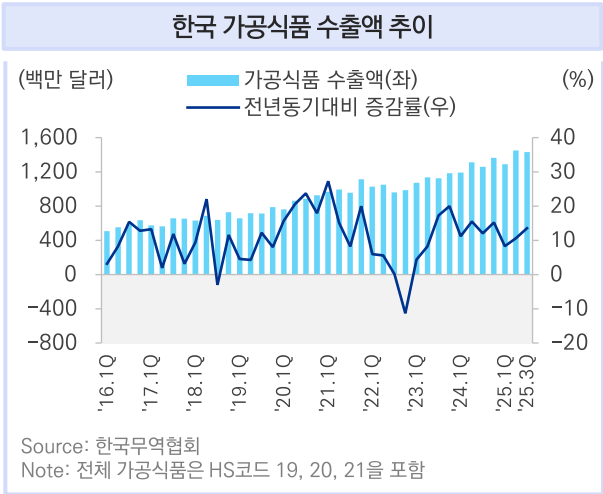
2025년 국내 식품 시장 현황 및 2026년 전망

- 식음료 물가 상승세는 점진적으로 완화될 전망이나 여전히 전체 평균을 상회하는 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 한편 식품 내수 소비는 '25년 대비 소폭 증가할 것으로 보이지만 가성비 중심 소비의 구조적 강화로 인해 실질적 회복 강도는 제한적일 전망
 - 식음료 물가 상승률은 '25년 3분기 3.9%으로 나타남. '26년에도 식음료 물가는 전체 평균을 웃도는 흐름이 지속되겠으나 일부 원재료 및 곡물의 공급 정상화와 정부의 가격 억제 정책이 일정 부분 물가 안정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관측
 - 소비자들의 물가 부담 지속과 소비심리 위축 속에서 가격 경쟁력을 내세운 PB(Private Brands) 제품의 수요가 견고하게 유지될 전망. 한편 신체적·정서적 건강 중시 흐름이 지속되면서 기능성 식품 및 저염·저당·고단백 등 로우스펙푸드(Low-spec Food) 수요가 증가하며 가성비 중심 소비와 프리미엄 웰니스 수요가 공존하는 양극화 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보임



2025년 K-푸드 수출 현황 및 2026년 전망

- '26년 식품 수출 시장은 K-컬처 확산 등 강력한 모멘텀을 바탕으로 성장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
 - 라면, 조미김, 스낵, 음료 등 주력 품목 수출 확대에 힘입어 한국 가공식품 수출액은 '25년 3분기 누계 기준 전년동기대비 10.9% 확대된 41억 7,000만 달러를 기록하며 성장세를 지속 중
 - '26년 K-푸드 수출은 주력 품목 외 냉동 간편식, 쌀가공식품, 장·소스류 등으로 품목 다각화가 이뤄지며 수출 호조를 견인할 것으로 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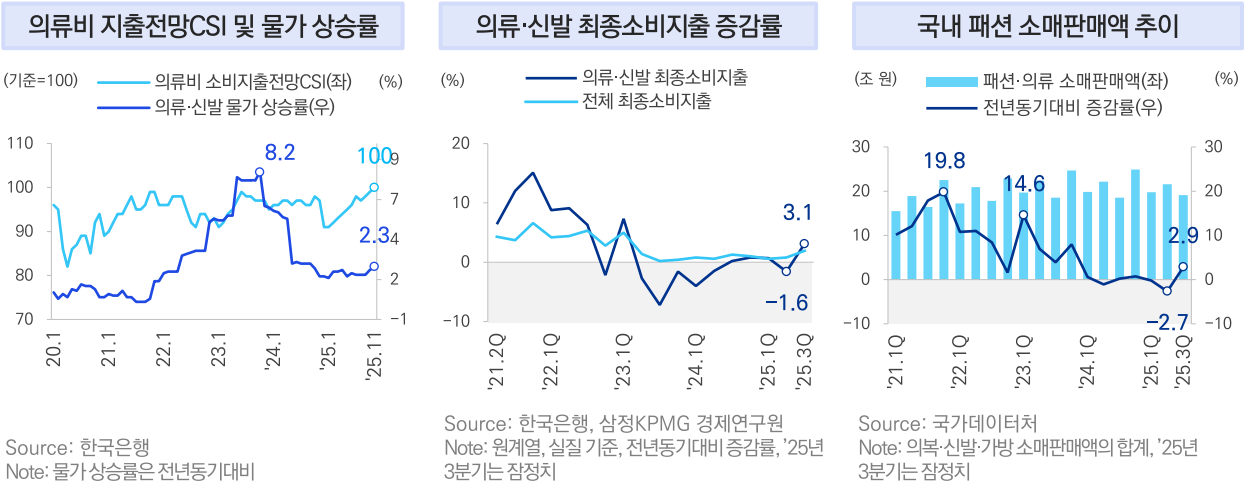


패션

침체기 넘어 소폭 개선 전망, 다만 회복 강도는 제한적

<패션> 2025년 현황 및 2026년 전망

- 패션 물가 안정화 조짐이 관찰되지만 합리적 소비 기조가 강화되며 의류·신발 등 당장 필요하지 않은 준내구재 지출을 자제하려는 추세가 당분간 지속 예상**
 - 국내 의류·신발 물가 상승률은 '22년 이후 급격히 오르며 '23년부터 '24년 상반기까지 5~8%의 급등세가 지속됐으나, 이후 상승세 둔화와 함께 '25년부터 2% 내외의 안정된 흐름이 유지되며 소비 부담이 완화되는 추세
 - 의류·신발 물가가 하향 안정세에 진입함에 따라 의류비 지출전망CSI는 '25년 3분기 들어 점진적 회복 조짐이 나타나지만, 중장기적 지출 확대 가능성은 불투명
 - 의류·신발 지출은 '23년 2분기 이후 감소세에서 '25년 3분기 전년동기대비 3.1%로 반등. 경기 회복과 더불어 소비 심리가 소폭 개선되는 등 일부 긍정 요인이 존재하나 '26년 의류·신발 지출 성장폭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
- '26년 패션·의류 시장 전반의 성장 둔화 양상이 이어지겠으나 특정 품목 중심의 소폭 성장세가 관찰될 전망**
 - 패션·의류 소매판매액은 '23년 하반기부터 하강 보합세가 지속되어 왔으나 '25년 3분기 2.9%를 기록. 전반적인 소비 회복 흐름에 힘입어 '26년 패션·의류 시장은 일부 회복세를 보일 전망
 - 소비자들의 가격 민감도가 높아지면서 중저가 가격대의 SPA 브랜드의 경쟁력이 높아지는 한편 개성 중시 소비로 SNS에서 탄생한 인디 패션 브랜드의 입지가 확대. 더불어 지속되는 러닝 열풍으로 인해 스포츠 의류 및 애슬레저 중심으로 수요가 유지될 가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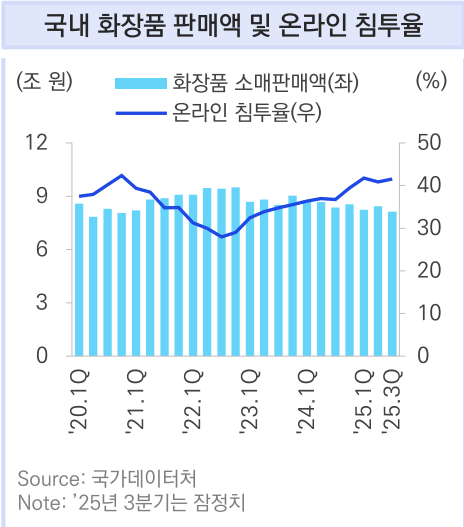




화장품 K-뷰티 수출이 내수 부진을 상쇄하며 성장 견인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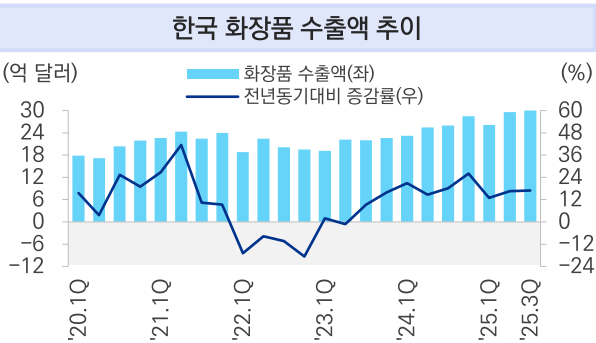
2025년 국내 화장품 시장 현황 및 2026년 전망

- 화장품 내수 시장의 회복이 지연되고 있으나, 방한 관광객의 화장품 구매가 소폭 회복세 이끌 것
 - 화장품 소매판매액은 '25년 3분기 누계 기준 전년동기대비 3.8% 감소한 24.8조 원에 머물며 내수 부진이 지속. 다만 외래 관광객 유입 증가가 '26년 화장품 판매 실적 회복에 일부 긍정적 영향을 미칠 전망
- 온라인과 H&B(Health&Beauty) 스토어 중심의 화장품 유통 환경이 굳건히 자리잡는 한편 중소형 인디 뷰티 브랜드의 성장 모멘텀이 부각
 - 인디 뷰티 브랜드의 영향력이 지속 확대되며, OEM·ODM업체는 인디 뷰티 브랜드 성장의 수혜를 입고 견조한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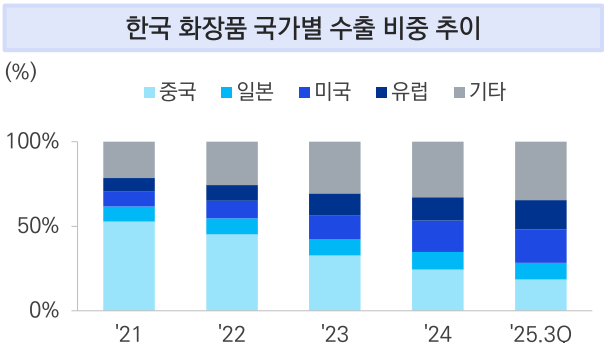


2025년 K-뷰티 수출 현황 및 2026년 전망

- 한국 화장품 수출은 글로벌 K-뷰티 인기로 힘입어 호조세 지속 예상
 - 국내 화장품 수출은 '25년 3분기 누계 기준 전년동기대비 15.5% 확대되었으며, '25년 수출은 對미국, 유럽 수출 급증 등에 힘입어 역대 최대 실적을 경신할 것으로 전망
 - 혁신성과 트렌드 선도 역량을 강점으로 내세운 인디 뷰티 브랜드가 글로벌 시장에서 인기를 끌며 한국 화장품 위상이 지속적으로 높아질 전망. 스킨케어·메이크업 제품으로 살펴볼 때, 한국은 '25년 7월 누계 기준 주요 화장품 소비 시장인 미국과 일본에서 수입 점유율 1위를 기록하며 경쟁력 제고
- K-뷰티 주력 수출국의 구조적 다변화 가속화 전망
 - 한국 화장품 주요 수출국 중 중국 비중은 '25년 3분기 누계 기준 18.6%로 '24년 대비 5.6%p 줄어든 반면 對미국 화장품 수출 비중은 동기간 19.7%로 전년동기대비 0.6%p 증가하며 미국이 1위 수출국으로 부상. 북미, 일본, 유럽을 포함해 중동·남미 등 중국 외 국가에서 K-뷰티가 저변을 확대하면서 기업들의 적극적인 해외 진출이 이어질 전망



Source: 한국무역협회
Note: HS 3303, 3304, 3305, 3306, 3307, 3401 기준



Source: 한국무역협회
Note: '25년은 3분기 누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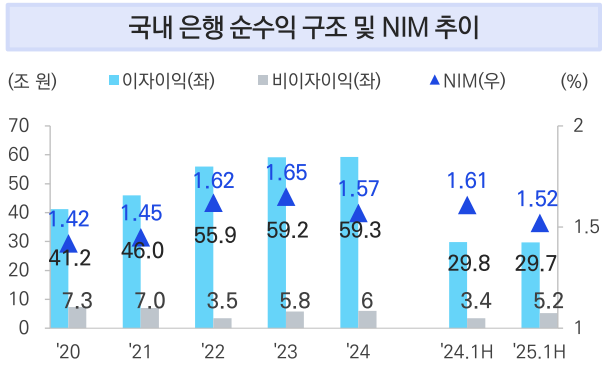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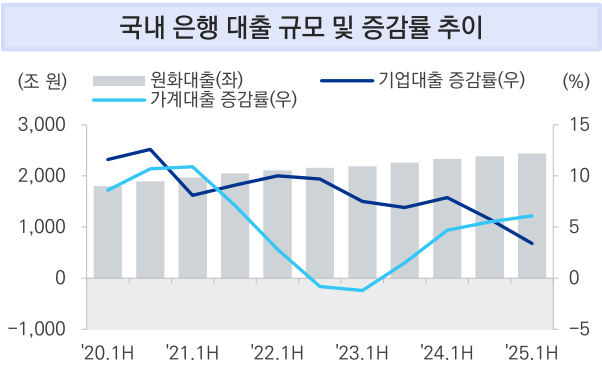


은행

기업대출 중심 생산적·포용적 금융으로의 전환

2025년 은행 현황과 2026년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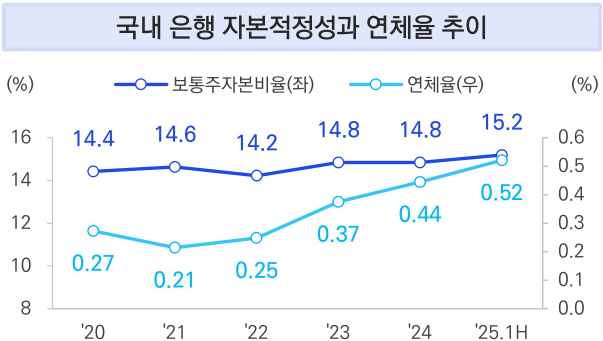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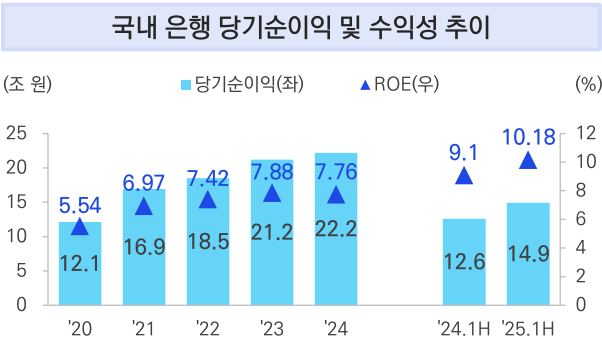
- 가계대출 제한과 생산적 금융 강화 기조에 따라 기업대출 확대 전망
 - 주택담보대출의 위험가중치 하한 상향과 금융사의 주식 보유·펀드 투자 관련 위험가중치 기준 합리화 등 정부의 생산적 금융 확대 기조에 따라 가계대출 성장세는 소폭 둔화하겠으나, 기업대출 확대를 중심으로 여신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
 - 핵심 성장산업 관련 대규모 투·융자 등을 통해 신사업 추진 기반 마련 및 비이자이익 개선 등 포트폴리오 다변화 가능
 - 은행권 장기 자금 유치 및 기업대출 경쟁 심화와 스테이블코인 발행·운영의 선점을 위한 행보 본격화 전망. 각 은행별 AI 도입을 통한 실질적 경쟁력 제고 방안을 적극 모색할 전망



Source: 금융감독원
Note: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Source: 금융감독원
Note1: 비이자이익은 수수료, 신탁 관련, 유가증권, 외환관련 순수익의 합
Note2: NIM(Net Interest Margin, 순이자마진)은 누적 분기 실적을 연율환산

- 트럼프 정부 관세·통화정책 불확실성, 환율과 연체율 상승, 생산적 금융 대응을 위한 자본 및 건전성 관리 필수
 - 미국 관세 및 통화정책 불확실성 속 고환율, 지방 부동산 위축과 석유화학산업 등 구조조정에 따른 부실 위험성, 생산적 금융 확대 등에 대비해 RWA(Risk-Weighted Assets)와 CET1(보통주자본) 비율 등 건전성·리스크 관리 및 자본 확충 필요
 - '26년 포용적 금융 기조와 서민 대상 대출금리 인하 압박은 수익성 저하 요인이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 약화로 NIM의 하락 가능성이 제한됨에 따라 이를 상쇄할 가능성



Source: 금융감독원

Source: 금융감독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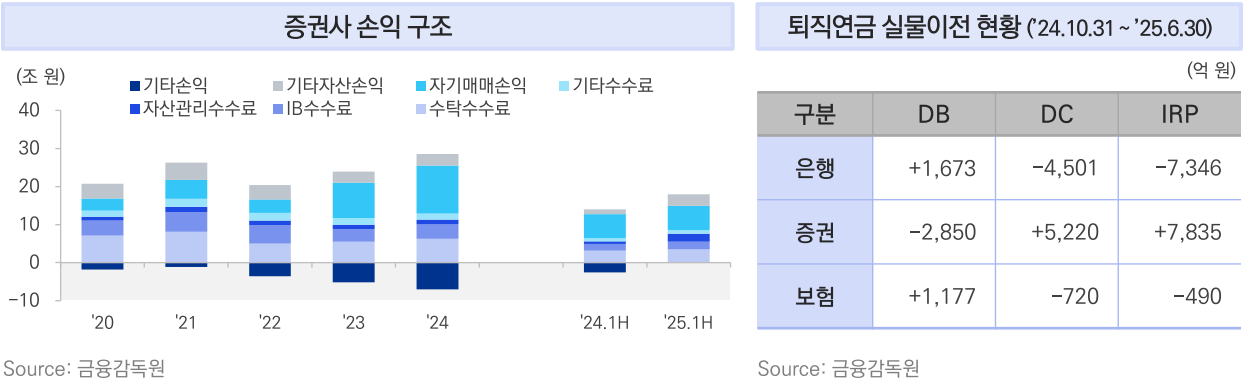


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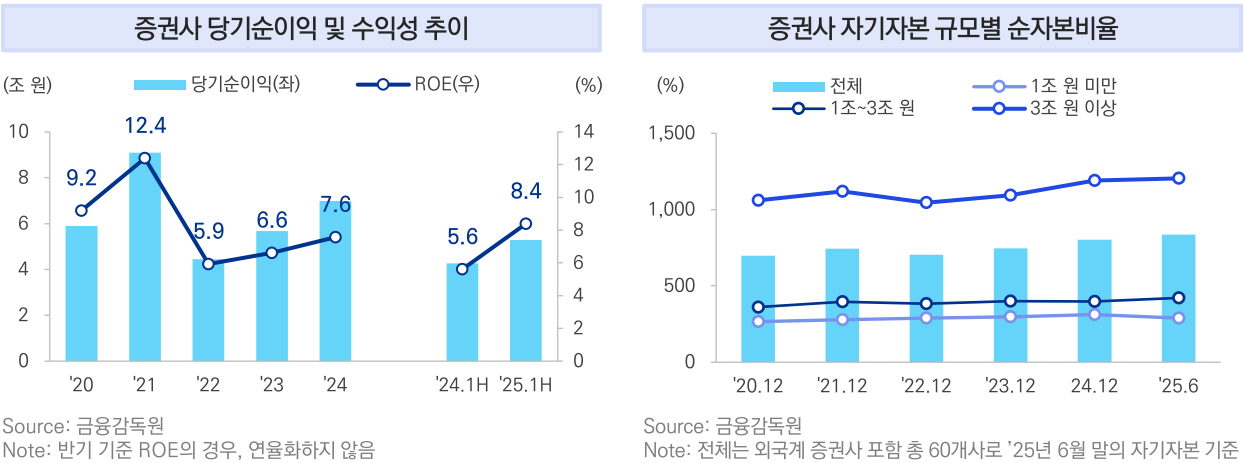
IMA 도입에 따른 자금 이동과 증권사간 양극화

2025년 증권업 현황과 2026년 전망

- 퇴직연금 실물이전 시행으로 시작된 자금 대이동, 코스피 강세 전망과 IMA 상품 출시로 가속화 전망
 - 국내 증시 활황과 미국 주식 투자 확대로 인해 증권사로의 자금 유입 확대. 거래대금 급증으로 브로커리지 수익 호황과 자기자본 운용이 증가하는 등 증권사 실적이 개선되었으며, '26년 자사주 의무 소각·배당소득 분리 과세 등 주주환원 강화로 증시 훈풍이 이어질 소지
 - '24년 10월 퇴직연금 실물이전 시행 후 약 8개월간 은행에서 증권사로 1조 원 이상의 자금이 이동. 전체 퇴직연금 적립액 중 증권사 점유율이 '25년 상반기 처음으로 25%를 상회하는 등 퇴직연금 시장 내 증권사 역할 강화. 이에 고객 수요 기반 온라인·맞춤형 연금 등 서비스 다변화 필요성 증가
 - '25년 12월 첫 상품 출시가 예상되는 증권사 IMA(Individual Management Account, 종합투자계좌)는 원금 보장 및 연 4~8%의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투자상품으로 은행 예금을 빠르게 흡수할 가능성



- 대형 증권사 중심 수익성 개선 전망되나 중소형 증권사는 신사업 등 대책 필요
 - IMA는 자기자본 8조 원 이상 대형 증권사만 운용할 수 있는 제도로써 IMA 지정·대형 증권사와 비지정·중소형 증권사 간 양극화 심화 전망. 중소형 증권사 등은 디지털 기반 서비스, 협업·체류 강화, 전문화와 틈새 시장 공략 등 마련 필요
 - AI 버블 가능성과 역대 최고 수준의 신용 용자 잔고 고려 시, 위험 분산 및 변동성에 대비한 선제적 대응 방안 모색





카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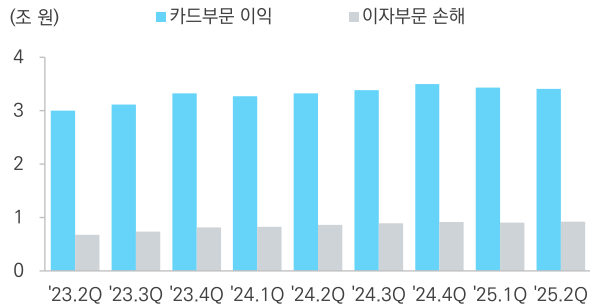
조달비용 증가와 규제 강화 속 저수의 구조 지속 전망

2025년 카드업계 현황과 2026년 전망

■ 카드부문 이익 하락과 조달 비용 증가로 수익성 악화 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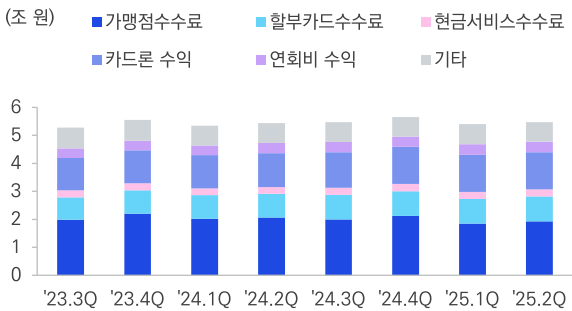
- 8개 전업 카드사의 카드부문 이익은 '24년 4분기 3.5조 원 이후 2분기 연속 하락세. 이자부문에서는 조달비용이 지속 증가하며 손해 규모가 '22년 2분기 4,568억 원에서 '25년 2분기 9,192억 원으로 두 배 이상 증가
- '21년 말부터 영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가맹점에 적용되는 신용·체크카드 수수료율은 지속 인하되었고 '25년 2월부터는 연매출 1,000억 원 이하 가맹점 대상 수수료율이 3년간 동결. 카드부문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가맹점수수료는 '24년 분기 평균 2조 원을 웃돌았으나 '25년 1·2분기 각각 1.84조 원, 1.93조 원에 그침

국내 카드사 카드부문 이익과 이자부문 손해 추이



Source: 금융감독원
Note: 8개 전업 카드사 기준

카드부문 세부항목별 수익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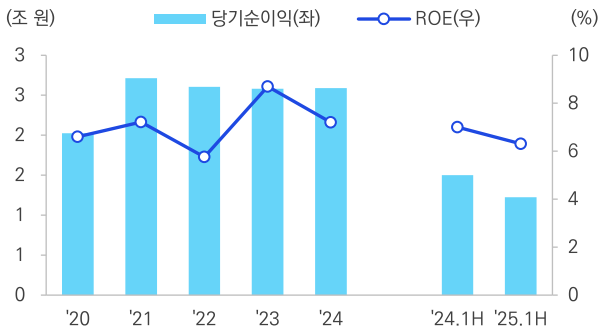


Source: 금융감독원
Note: 8개 전업 카드사 기준

■ 대출 규제 강화와 대손비용 증가로 카드론 수익 감소 전망 및 건전성 악화에 대한 리스크 관리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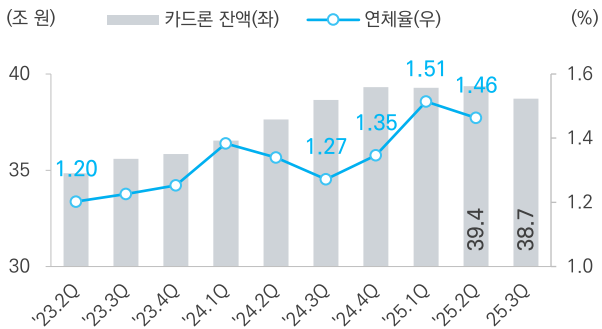
- 10·15 부동산 대책에서 카드론이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에 포함됨에 따라 대출 이용액의 감소 예상
- 카드론 잔액은 '25년 2분기 39.4조 원에서 3분기 38.7조 원으로 감소. 카드론 수익은 '25년 2분기 1.33조 원으로 완만한 증가세를 보여왔으나, 카드론 잔액 감소로 카드론 수익도 감소 전망
- 카드사 연체율은 '25년 2분기 기준 1.46%로 높은 수준이며 향후 대손비용 증가 가능성 상존

국내 카드사 수익 구조 및 ROE 추이



Source: 금융감독원
Note: 8개 전업 카드사 기준, ROE는 직전 1년 기준

국내 카드사의 카드론 잔액 및 연체율 추이



Source: 금융감독원, 여신금융협회
Note: 8개 전업 카드사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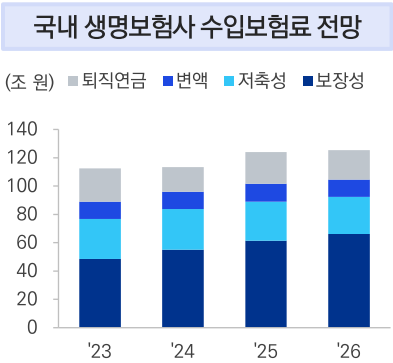


보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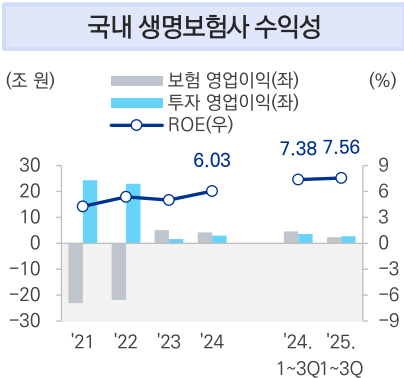
성장성 둔화 속 환헤지 비용을 고려한 K-ICS 관리 필요

<생명보험> 2025년 생명보험업계 현황과 2026년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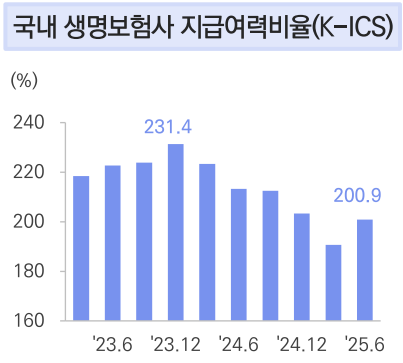
- 저축성 보험 축소 대비 보장성 보험 성장세 가운데 환율 및 금융시장 변동성에 따른 수익성·건전성 관리 필요
 - IFRS17 적용 이후 저축성 보험 판매 위축 대비 보험계약마진율이 높은 장기 보장성 상품 위주의 판매 확대가 이어지며 수입보험료는 증가 전망. '25년 1~9월 중 손해액 증가와 보험 계약 손실 비용으로 보험손익 축소
 - 기준금리 동결 가능성으로 역마진과 운용수익 감소 우려는 완화. 고환율 지속으로 외화자산 헤지 비용 증가와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응해 해외투자 관리 및 건전성 제고 필요



Source: 보험연구원
Note: '25년은 추정치, '26년은 전망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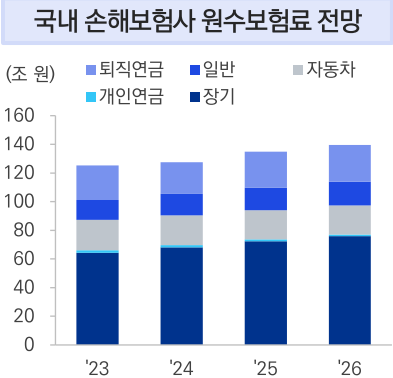
Source: 금융감독원
Note: '23년 상반기부터 IFRS17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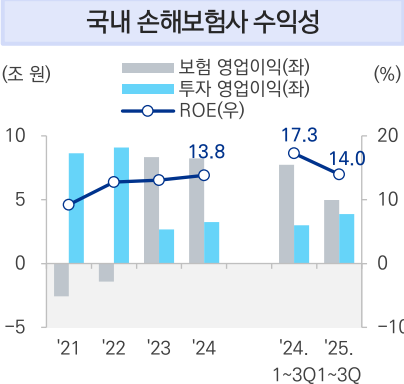
Source: 금융감독원
Note: 지급여력비율은 경과조치 後 K-ICS 비율

<손해보험> 2025년 손해보험업계 현황과 2026년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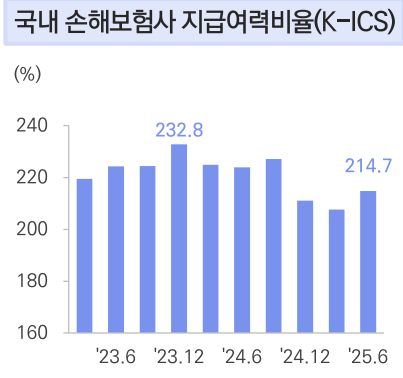
- 자동차보험 수요 감소로 장기손해보험 수요 증가가 상쇄되며 성장세 둔화, 손해율 상승으로 수익성 하방 압력 전망
 - 고령화로 질병 및 상해보험 등 장기손해보험 수요는 증가하나 자동차손해보험 수요 감소('25년 1~9월 중 자동차손해보험 수입보험료는 전년동기대비 1.8% 감소)가 점진적으로 진행되며 원수보험료의 성장성 둔화 전망
 - 자동차보험 손해율의 상승('21년 상반기 79.4% → '25년 상반기 83.3%) 및 실손보험 청구 증가에 따른 예실차 손실 등으로 손해보험사 수익성 하방 압력 심화 전망



Source: 보험연구원
Note: '25년은 추정치, '26년은 전망치



Source: 금융감독원
Note: '23년 상반기부터 IFRS17 적용



Source: 금융감독원
Note: 경과조치 後 K-ICS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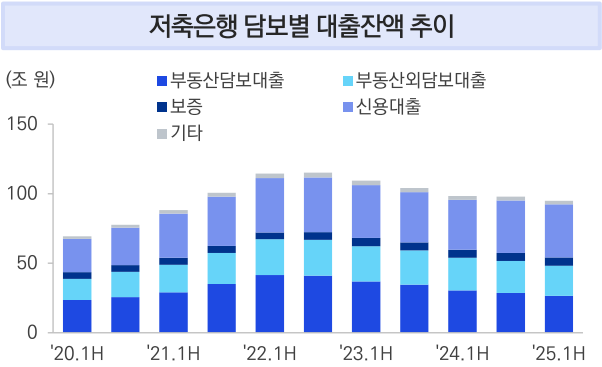


저축은행·상호금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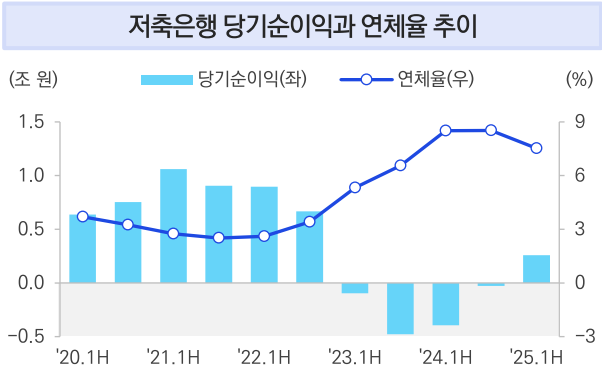
부동산PF 여파와 부실 정리는 여전히 진행형

<저축은행> 2025년 저축은행 현황과 2026년 전망

- 부실채권 정리에 따른 건전성 회복과 흑자전환 등 수익성 개선, '26년은 성장보다 내실 다지는 턴어라운드 준비 시기
 - 저축은행은 '25년 2.5조 원 규모의 부동산PF 관련 부실자산 정리 예정. 부동산담보대출은 '24년 상반기 말 30.5조 원에서 '25년 상반기 말 26.6조 원으로 감소. 연체율은 동기간 8.5%에서 7.5%로 감소하며 '25년 말 6%대 진입 전망
 - 당기순이익 측면에선 '23~'24년 적자에서 벗어나 '25년 상반기 흑자전환에 성공한 것은 긍정적이나 '23년부터 이어진 대출잔액 감소 추세가 이어지며 '26년 저축은행의 외형 성장은 제한적일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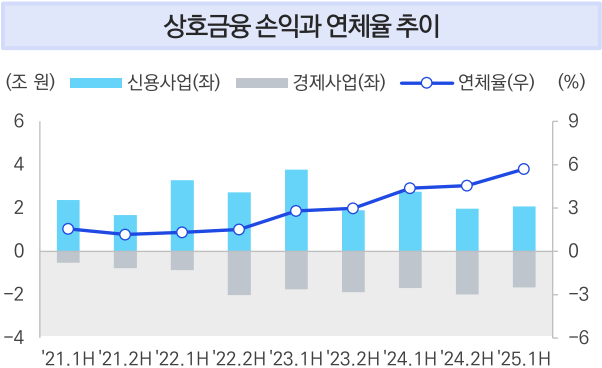
Source: 금융감독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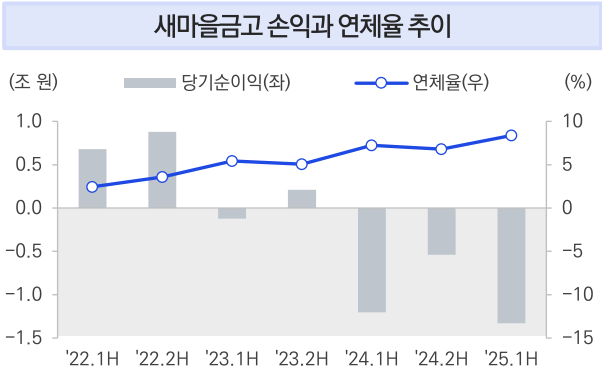
Source: 금융감독원

<상호금융> 2025년 상호금융 현황과 2026년 전망

- 부동산PF 부실 여파로 수익성 감소와 총당금 적립이 늘며 연체율 증가세 지속, '26년 건전성 관리가 핵심 과제
 - 상호금융은 NPL 자회사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부실자산 정리에 나섰으나 부동산 경기 침체 지속으로 부실채권 매각이 여의치 않은 상황. '26년 부실채권 정리에 따른 손실 인식으로 수익성 개선에 한계. 건설·부동산업 대출 대손충당금 요적립률 강화안(100% → 130%) 시행 시 적자 조합 증가 전망
 - 새마을금고는 '25년 상반기 1.3조 원 규모 적자와 연체율 8.4% 기록. 새마을금고 감독권은 행정안전부에 남을 것으로 예상되며 금융당국과의 협업으로 건전성 관리 강화 전망



Source: 금융감독원



Source: 행정안전부



시사점 및 기업 대응 전략





「매우 긍정」 전망 산업 대응 전략



반도체

- AI 시대 데이터 처리 수요 대응을 위한 HBM(고대역폭메모리) 등 고성능 반도체 기술 확보가 경쟁력 확보를 위해 중요
- AI 중심의 반도체 수요 확대로 인한 공급 제약과 단가 상승에 대응하는 효율적 공급 계획 마련으로 수익 극대화 방안 마련 필요



화장품

- 글로벌 시장 내 K-뷰티 위상 강화와 함께 인디 뷰티 브랜드 가치가 부각되는 상황에서 국내 화장품 기업은 적극적으로 인디 브랜드를 육성·개발하며 시장 생태계 내 지속가능한 경쟁 우위를 확보해야 함
- 북미, 일본, 유럽, 중국 등 K-뷰티 주력 수출국 외 중동, 남미 등 K-뷰티 잠재 수요가 존재하는 미개척 시장을 염두에 두고 시장 진출 기회를 지속 모색할 필요

Source: 삼성KPMG 경제연구원











『긍정』 전망 산업 대응 전략

<div> </div> <div>스마트폰</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I를 필두로 한 고성능 태스크 구현 역량 확보와 폼팩터 혁신을 통한 차별화가 스마트폰 시장의 핵심 경쟁 요소가 될 것 • 우수한 AP(Application Processor) 구축 역량 확보와 신규 폼팩터 제품군 출시를 통한 수요 창출에 주목하여 시장 경쟁력 확보 방안 모색 필요
<div> </div> <div>조선</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 기구의 환경 규제 강화 기조에 대응하여 고부가가치·차세대 친환경 연료 선박에 대한 투자 강화 및 생산 포트폴리오 전환 • 글로벌 경쟁력을 기반으로 북미·유럽·동남아시아 국가의 방산 수요를 포착하고 잠수함, 호위함, 구축함 등 맞춤형 해양 방위 자산을 통한 선박 전략 인프라 공급망 구축 및 MRO 수요 확보
<div> </div> <div>제약·바이오</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약 개발 전(全) 주기적 단계 내 AI 기술 고도화 필요성이 확대됨에 따라 전략적 R&D 생태계를 조성을 위한 성과 중심의 R&D 및 디지털 전환 추진 전략 등 비즈니스 모델 재설계 필요 • 비만·대사질환 및 항암제를 비롯하여 세포·유전자 치료제 등 주요 분야별 중심의 기술 및 설비 고도화 투자 기반의 차별화된 파이프라인 전략과 약가·규제 등 글로벌 환경 변화에 대응
<div> </div> <div>항공</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합항공사 출범과 LCC 재편에 대비해 노선·기단 운영을 효율화하고, 유가·SAF(Sustainable Aviation Fuel, 지속가능 항공유) 비용 증가에 대응한 안정적 비용 구조를 구축 • 반도체·바이오 등 고부가 화물 비중 확대에 맞춰 화물 포트폴리오를 고도화하고, AI·HBM 기반 물동 변화에 대응할 운송 역량 강화 전략이 요구됨
<div> </div> <div>미디어·엔터테인먼트</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질적 성장 모멘텀 확보를 위해 시청·구매·참여 데이터를 활용한 AI 개인화 서비스와 광고·커머스·팬커뮤니티 구독 등 데이터 기반 수익모델을 강화하고, 팬덤 세분화 기반 고부가 비즈니스와 글로벌 시장 확장을 함께 추진 • 산업의 핵심인 IP 제작과 관리 역량을 고도화해 분야와 장르를 확장하고 신규 사업 기회 모색
<div> </div> <div>은행</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환율 대응과 부실채권 관리, 생산적 금융 확대, 주주환원 강화를 아우르는 균형 잡힌 수익성·건전성 관리가 요구됨. 생산적 금융 관련 자본력 확충과 전담조직 신설, 리스크 관리 등 인프라 재정비 필요 • 디지털·인공지능 전환과 기업금융 부문의 전문인력 확보, KPI·조직 정비와 대출심사 관행 개선 등 내부 역량을 강화해야 함. 부수업무 확대 가능성, 지주사 시너지를 활용한 자산관리 등 신사업 검토
<div> </div> <div>증권</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MA와 발행어음 미인가 대형사의 경우 사업자 인가에 총력, 중소형 증권사는 IB 등에 특화하거나 틈새 시장 공략, 디지털·플랫폼 기반 서비스 강화 등 차별화 전략 마련 필요 • 금융시장 변동성 증가에 대응한 자산운용과 리스크 관리 역량 강화, 고객군 다변화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 제공이 필요. 고액자산가 대상 패밀리오피스·퇴직연금 등 성장 분야에 대한 선제적 대비

Source: 삼성KPMG 경제연구원



『중립』 전망 산업 대응 전략

 <p>에너지·유틸리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부의 원전 비중 확대 계획과 신규 원전·SMR 추진으로 전력 공급에서 원자력 비중 확대 기조에 따라 원전 관련 규제·안전 강화를 포함하여 운영 효율화 기술 적극 도입 필요 신재생 에너지 증설 확대와 함께 계통·규제·수익성을 통합 관리하는 전략이 필요하고, 가스 (LNG·LPG)의 경우 연료 공급선 운송루트·계약구조 다변화 등을 통한 포트폴리오 구조화
 <p>디스플레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글로벌 시장 점유율 1위로 굳힌 중국과 2위 한국 간의 격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상황에서 한국 기업은 차량용 디스플레이 등 고부가가치 제품군으로의 차별화 전략을 고도화 디스플레이 밸류체인·공급망 안에서의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모색하며 신시장 개척에 나서는 동시에 원가 혁신 등을 토대로 경쟁 우위를 확보해야 함
 <p>건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공·SOC 중심의 수주 비중을 확대해 민간 침체 리스크를 흡수하고, 정책·지역 투자 흐름에 맞춘 공공 발주 대응력을 강화 민간 주택 공급 둔화와 공사비 상승에 대비해 비주거·리모델링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조정하고, 원가·자재·안전 규제 대응을 위한 비용관리 체계 고도화가 요구됨
 <p>게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별 문화적 취향에 맞춘 현지화와 주요 플랫폼 중심의 서비스 최적화를 추진, 인기 IP의 리부트·확장으로 IP 자산 가치를 높이며, AI 기반 제작 효율과 콘텐츠 업데이트 경쟁력을 강화 변화하는 소비자 니즈에 맞춰 보유 IP 기반의 캐주얼, 멀티플랫폼 버전 등 즉시성 높은 플레이 경험을 구축하고, UGC(User Generated Content) 제작 툴, 크리에이터 협업 등 이용자 참여와 커뮤니티 활성화 유도
 <p>유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오프라인은 업태별로 타겟 소비자 및 구매 패턴에 맞춘 제품 구성 및 편의성 제공으로 온라인과 차별화를 도모하며 경쟁력 제고 온라인은 차별화된 서비스 경험, 타겟팅 정교화 등이 필수 전략으로 부상 중인 가운데, 주요 기업은 양질의 소비자 데이터를 다차원적으로 확보하는 한편 AI 에이전트 등을 활용해 초개인화 기술 고도화에 주력
 <p>식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실속형 소비 트렌드에 대응해 간편식, 밀키트, PB 제품 등을 중심으로 품질 및 원가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웰니스(Wellness) 식문화에 부합하는 건강 지향 제품 라인업을 확대할 필요 주요 식품업체들은 늘어나는 K-푸드 수요에 적극 대응 위해 국내외 생산기지 및 물류센터 확대를 추진하고 글로벌 시장 내 주요 유통채널로의 입점 다변화를 꾀해야 함. 한편 해외 생산 및 유통망 확보를 위해 현지 기업에 대한 M&A 검토 가능
 <p>패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민한 소비자 니즈 파악과 재고 관리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가운데, 중소규모 인디 패션 브랜드 등 성장성 높은 브랜드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해야 함. 아울러 패션 플랫폼과의 연계를 통해 해외 시장 진출 기회를 지속 타진 패션OEM업계는 외부 리스크에 대한 유연한 대응을 위해 생산 거점 다변화를 지속하고, 첨단 기술 기반 자동화 공정 등으로 소비자 맞춤형 요구에 적시 대응
 <p>보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금융시장 변동성에 대한 대응력 강화와 고환율에 따른 지급여력비율 관리 및 계리가정 선진화 등 자본규제에 대비한 선제적 건전성 관리가 요구 모집중사자 관련 수수료 개편에 대비한 채널 경쟁력을 강화. AI 기반 업무 자동화 등 신기술 적극 활용도 필수적. 고령화 대응 건강·간병보험과 헬스케어 플랫폼 연계형 보험 등 포트폴리오 확대 필요

Source: 삼성KPMG 경제연구원



「부정」 전망 산업 대응 전략



자동차

- 친환경 전환 전략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되, 국가별로 전략 차별화 수립 필요
- 현지화와 함께 하이브리드 생산에 집중해야 하는 미국에서 국내 기업은 하이브리드 현지 생산량 극대화 필수. 한편, 유럽의 경우 전반적으로 전기차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차급, 가격대별로 수요가 차별화되므로 니치 섹터 선별 필요. 인도의 경우 전기차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으로 빠른 시장 선점을 위한 투자, 인재 채용 등 지역 맞춤형 전략 실행이 요구됨



철강

- 단기적으로 정부의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정부와 수출 활성화를 위한 대응 마련에 집중하는 한편, 업계 내부적으로는 과잉설비 감축 및 고부가가치 제품으로의 전환을 서둘러야 함
- 저가 제품과의 차별화 및 미래 철강 시장 선점을 위해 수소환원제철 등 친환경 및 미래 기술 투자는 지속적으로 수행 필요



해운

- IMO 탈탄소 규제에 맞춰 LNG·암모니아 등 친환경 연료 선박 개발을 가속화하고 기존 선박 개조 및 에너지 효율화 기술 도입 필요
- 점차 예측이 어려워지는 국제 분쟁·무역 전쟁 등 주요 지정학적 이슈를 기민하게 모니터링하고 다변화된 항로 활용을 검토하여 물류 효율성 제고 방안 확보 필요



정유·화학

- 글로벌 정제마진 하방 압력과 정제설비 증설·구조전환이 동시에 일어나는 만큼 지역별 수급 상황에 따른 가격차이 확대 가능성이 존재하여 리스크 관리와 더불어 저탄소 등 중장기적 포트폴리오 수립
- 국내 석유화학산업은 수익성 압박이 지속되면서 정부 주도의 대규모 감축·구조조정 전환의 해가 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설비 통폐합 또는 생산 효율화, 고부가가치·친환경 제품 개발 등 사업 포트폴리오 재편을 가속화함과 동시에 정부의 석유화학산업 관련 정책 로드맵에 적극적인 참여 필요



카드

- 조달비용 절감을 위한 조달 채널 다변화, AI 기반의 리스크 심사나 데이터 기반의 고객 맞춤형 혜택 제공, 플랫폼 결제 등 디지털 경쟁력 강화와 리스크 관리 필요
- 스테이블코인 도입에 따른 시장 경쟁 구도 급변 속 결제 시장에서 새로운 역할 정립 필요



저축은행·
상호금융

- 저축은행은 '26년을 본격적인 턴어라운드의 원년으로 삼을 수 있도록 부실채권 정리에 집중하는 한편 서민금융 기능 강화와 지역균형 촉진 기조하에 체질 개선과 포트폴리오 다변화, 내부 역량 축적
- 상호금융은 보다 적극적인 부동산PF 부실채권 정리와 여신 포트폴리오 다변화로 부동산 대출 의존도를 낮출 필요

Source: 삼성KPMG 경제연구원

Business Contacts

Industry Leader

금융산업
권영민 부대표
T 02-2112-0217
E ykwon@kr.kpmg.com

유통·소비재산업
한상일 부대표
T 02-2112-0832
E sangilhan@kr.kpmg.com

전자·정보통신·반도체·엔터·미디어산업
염승훈 부대표
T 02-2112-0533
E syeom@kr.kpmg.com

제조·공공·인프라산업
황재남 부대표
T 02-2112-7609
E jaenamhwang@kr.kpmg.com

제조·에너지산업
노상호 부대표
T 02-2112-7626
E sanghoroh@kr.kpmg.com

home.kpmg/kr



The information contained herein is of a general nature and is not intended to address the circumstances of any particular individual or entity. Although we endeavor to provide accurate and timely information, there can be no guarantee that such information is accurate as of the date it is received or that it will continue to be accurate in the future. No one should act on such information without appropriate professional advice after a thorough examination of the particular situation.

© 2025 KPMG Samjong Accounting Corp., a Korea Limited Liability Company and a member firm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Limited, a private English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ll rights reserved.

The KPMG name and logo are trademarks used under license by the independent member firms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